

전발연 2005-R-05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연구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나 상 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박 형 창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노 상 윤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서 기 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무역관 차장
 최 백 렬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8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치중하였으나 외국인 기업유치는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에 대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에 관련한 내용 보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및 유인책에 주안점을 두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현황, 외국인 기업의 투자결정요인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입지 행태 분석, 유치대상 기업, 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구성
- 입지행태 분석에서는 전라북도에 투자된 기업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라북도 소재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초로 하여 일정액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을 때, 전북지역에 파급되어질 경제적 효과를 양적 파급효과와 질적 파급효과로 분리하여 분석
-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사후관리를 통해 외국인 기업유치 전략을 단계별로 구분

3. 연구결과 요약

1) 외국인 기업의 투자 현황

- 120개 투자기업 중 일본 41(34.2%)개, 미국 30(25.0%)개, 프랑스 11(9.2%)개, 독일 10(8.3%)개, 싱가포르 5(4.2%)개, 중국 5(4.2%)개, 네덜란드 3(2.5%)개, 말레이시아 3(2.5%)개, 기타 12(10.0%)개 업체가 투자되었음
- 일본은 화공업체와 비금속업체가 주로 투자되었고, 미국은 금속업체와 식품업체가 주로 투자되었음
- 120개 투자기업 중 금속 34(28.3%)개, 화공 25(20.8%)개, 섬유 및 의류 10(8.3%)개, 식품 17(14.2%)개, 전기 및 전자 10(8.3%)개, 운송용 기기 2(1.7%)개, 기계 14(11.7%)개, 제지 및 목재 2(1.7%)개, 서비스 1(0.8%)개, 기타 제조업 5(4.2%)개 업체가 투자하였음
-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화공과 제지 및 목재업체가 투자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전략산업 업종인 식품과 기계 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120개 투자기업 중 가동 87(72.5%)개, 폐업 25(20.8%)개, 합병 2(1.7%)개, 휴업 1(0.8%)개, 준비 중 5(4.2%)개 업체로 나타남
- 폐업의 원인이 모기업의 부도, 합작기업과 불화, 노사관계로 인한 본국 철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2) 입지행태 조사결과

- 전라북도 투자동기는 고객 및 시장확보 24.2%, 저렴한 용지 21.2%, 편리한 교통 접근 9.1%,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9.1%, 저렴한 노무비 9.1%, 기타 등 27.3%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객 및 시장확보와 저렴한 용지등을 투자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인식
- 투자환경의 문제점은 물류체계 36.7%, 사회간접자본 36.6%, 지원체계 10.0%, 요소비용 10.0%, 행정서비스 6.7%로 나타나 고객 및 시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항 및 항만의 물류관련 시설 확보가 필요함
- 입지선정 정보 수집 방법은 자체조사분석 60.0%,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

13.3%, 국내합작 투자 6.7%, 전라북도 홍보자료 3.3%,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3.3%, 기타 13.3%로 나타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역량 강화 필요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성 분석

- 주요 지역산업체에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을 때에 전라북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소득(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추산
- 군산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 부품단지 내에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 질 경우 고용창출인원 1,274명, 생산유발효과 636.9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445.9원의 경제적 유발효과 발생
- LS전선에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경우 약 59명의 고용창출과 247.3억원의 생산유발, 28.7억원의 임금소득 발생
 - 외국인 기업 유치 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클러스터 위주의 유치 전략수립이 필요함

4)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은 항만 및 공항의 기능강화, 산업클러스터 위주의 유치전략 수립,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
- 투자기업체 발굴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DB화, 외국인 투자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국내 다국적 기업대상 투자 상담을 위주로 전개
- 마케팅 역량강화는 투자유치 브랜딩 사업, 전라북도 투자 마케팅 전담팀 구성, 업종별 공동투자 설명회 및 브로슈어 제작, 해외 광고사업 다양화, 정기적인 국내·외 영자판 신문 및 뉴스사이트 광고, 외국인 기업유치 가이드 북 제작
- 사후관리는 투자업체 일체조사, 후견인 제도 운영 및 기업체 현장 방문

II. 정책제언

1)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 발굴

- 잠재적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서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

2)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 기업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직접적인 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북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조성

3)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시스템 구축

- 산업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병행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지원, 지역별 산업 포지셔닝 전략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연계 추진

4) 프로젝트매니저 중심의 유치 지원체계

-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단계부터 전담인력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투자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5) 투자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 지역의 지원제도 안내, 인센티브 수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투자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6)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선택적 유치

- 지역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택 유치
- 제조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신규고용창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지원활동이 제조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7)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역할 분담체계 정립

- 전라북도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정립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외국인 투자의 개요	9
1. 외국인 투자의 개념	9
2. 외국인 투자의 유형과 방식	13
제2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15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15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18
제 3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현황	23
제1절 외국인 투자 유입의 현황과 특징	25
1.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현황과 특징	25
2.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현황과 특징	29
제2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39
1.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39
2. 투자유치 타깃기업 CEO초청 투자설명회	41
3.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42
4. 투자유치 홍보활동	43
5.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시사점	45
제3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의 행태 분석	47
1. 일반현황	47
2. 투자현황	50
3. 투자지원제도	56
4. 경영여건	60
제4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대상	63
1. 전략 산업별 중점 유치 대상	63
2. 지역별 중점 유치 외국인 기업	64

제5절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65
1.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	65
2. 지역경제에 대한 질적 파급효과	66
3. 지역경제에 대한 양적 파급효과	70
제 4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75
제1절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77
1. 기본전략	77
2. 세부사업	79
제2절 외국인 투자 기업체 발굴	81
1. 기본전략	81
2. 세부사업	82
제3절 홍보역량 강화	84
1. 기본전략	84
2. 세부사업	85
제4절 사후관리	89
1. 기본전략	89
2. 세부사업	91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5
제1절 결론	97
제2절 정책적 제언	99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활동 강화	99
2.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100
3.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시스템 구축	100
4. 프로젝트매니저(PM) 중심의 유치 지원체계	101
5. 투자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102
6. 산업과 연계한 투자기업의 선택	102
7.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역할 분담체계	103
■ 참고문헌	105
■ 부 록	109

표 목 차

<표Ⅱ-1>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 범위	10
<표Ⅱ-2> 외국인 투자의 유형	13
<표Ⅱ-3> 투자전략 및 투자동기에 의한 유형구분	15
<표Ⅱ-4> 투자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행태 분석	21
<표Ⅲ-1> 연도별 외국인 투자금액 추이	29
<표Ⅲ-2> 업종별 외국인 투자현황	30
<표Ⅲ-3> 업종별 외국인 기업체 가동현황	31
<표Ⅲ-4>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32
<표Ⅲ-5> 업체별 외국인 투자현황	33
<표Ⅲ-6> 연도별 휴·폐업 현황	33
<표Ⅲ-7> 외국기업의 투자유형	34
<표Ⅲ-8>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현황	35
<표Ⅲ-9> 투자유형에 따른 가동현황	35
<표Ⅲ-10> 투자유형에 따른 업종현황	36
<표Ⅲ-11> 지역별 외국기업 유치현황	37
<표Ⅲ-12> 지역에 따른 가동현황	38
<표Ⅲ-13> 투자 비율별 외국기업 유치 현황	39
<표Ⅲ-14> 설립연도(투자)	48
<표Ⅲ-15> 투자국 현황	48
<표Ⅲ-16> 생산 제품의 형태	49
<표Ⅲ-17> 외국인 투자 형태	49
<표Ⅲ-18> 외국인 투자동기(다중응답)	50
<표Ⅲ-19> 전북 투자환경 문제점(다중응답)	51
<표Ⅲ-20> 입지선정 필요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52
<표Ⅲ-21> 기술개발시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52
<표Ⅲ-22>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관련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	53
<표Ⅲ-23>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관련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	53
<표Ⅲ-24> 공장입지 결정요인	54
<표Ⅲ-25> 외투기업 입지의 지역과급효과	55
<표Ⅲ-26> 전북 기업유치 여건 개선도	56

<표Ⅲ-27> 투자 인센티브 인지도	57
<표Ⅲ-28> 투자유치팀의 지원도	58
<표Ⅲ-29> 유용한 지원시책(다중응답)	59
<표Ⅲ-30> 개선되어야 할 지원시책(다중응답)	59
<표Ⅲ-31> 전복 이전 후 사업성과	60
<표Ⅲ-32> 사업악화 요인(다중응답)	61
<표Ⅲ-33> 사업개선 요인(다중응답)	61
<표Ⅲ-34> 거래업체의 지역적 분포	62
<표Ⅲ-35> 주요 분야별 의사결정권	63
<표Ⅲ-36> 전략 산업별 연계된 중점유치 대상 분야	64
<표Ⅲ-37> 지역별 주요 유치산업	65
<표Ⅲ-38> 외국인 투자의 질적 과급효과	69
<표Ⅲ-39> 2005년 상반기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과급효과 ...	71
<표Ⅲ-40>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유발계수	72
<표Ⅲ-41> 투자액 100억원에 의한 경제적 과급효과	73
<표Ⅳ-1> 집적지구지정	78
<표Ⅳ-2>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생활환경 애로사항	78
<표Ⅳ-3>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추진일정	81
<표Ⅳ-4>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추진일정	83
<표Ⅳ-5> 홍보역량 강화 사업 추진일정	89
<표Ⅳ-6> 사후관리 사업 추진일정	93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의 방법	6
<그림 II-1> 외국 투자기업의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16
<그림 II-2> 공간 단위별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력 결정요인	18
<그림 III-1> 외국인 투자 추이(도착기준)	25
<그림 III-2>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6
<그림 III-3> 제조업 업종별 투자 추이	27
<그림 III-4> 서비스업 업종별 투자 추이	28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와 무한한 경쟁 환경 하에서 판매시장과 부존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앞선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후진국 모두 수출 및 고용확대, 기술이전 촉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단순한 외국자본의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선진경영기법의 습득,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술발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전라북도도 고도성장과정에서 부족한 자본은 외국자본 도입을 통해서, 기술의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기술도입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고, 이후 강력한 투자 정책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외 경제 신인도 제고에도 역시 크게 기여하여 왔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의 지역 간 이동이 보편화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 차원에서 해외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 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적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의 규모와 양적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촉진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반면,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의 기업발굴과 이들의 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유인책에 대한 관한 노력은 미흡하였다.

이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 경제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 기업유치 전략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념 및 입지상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업의 유형과 방식,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잠재적인 역량을 발굴하고, 유치 전략에 활용한다.

둘째, 전라북도의 외국인 기업의 투자 현황 및 입지행태를 분석한다. 외국인 기업의 투자현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현황과 전라북도의 투자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입지형태 분석에서는 전라북도에 투자된 기업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라북도 소재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이전동기, 이전과정 상의 문제점, 행정지원서비스와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된 기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초로 하여 일정액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을 때, 전북지역에 파급되어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양적 파급효과와 질적 파급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양적 파급효과 분석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되어질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유치에 있어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산업분야를 선정하였다.

넷째,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사후관리를 통해 외국인 기업유치 전략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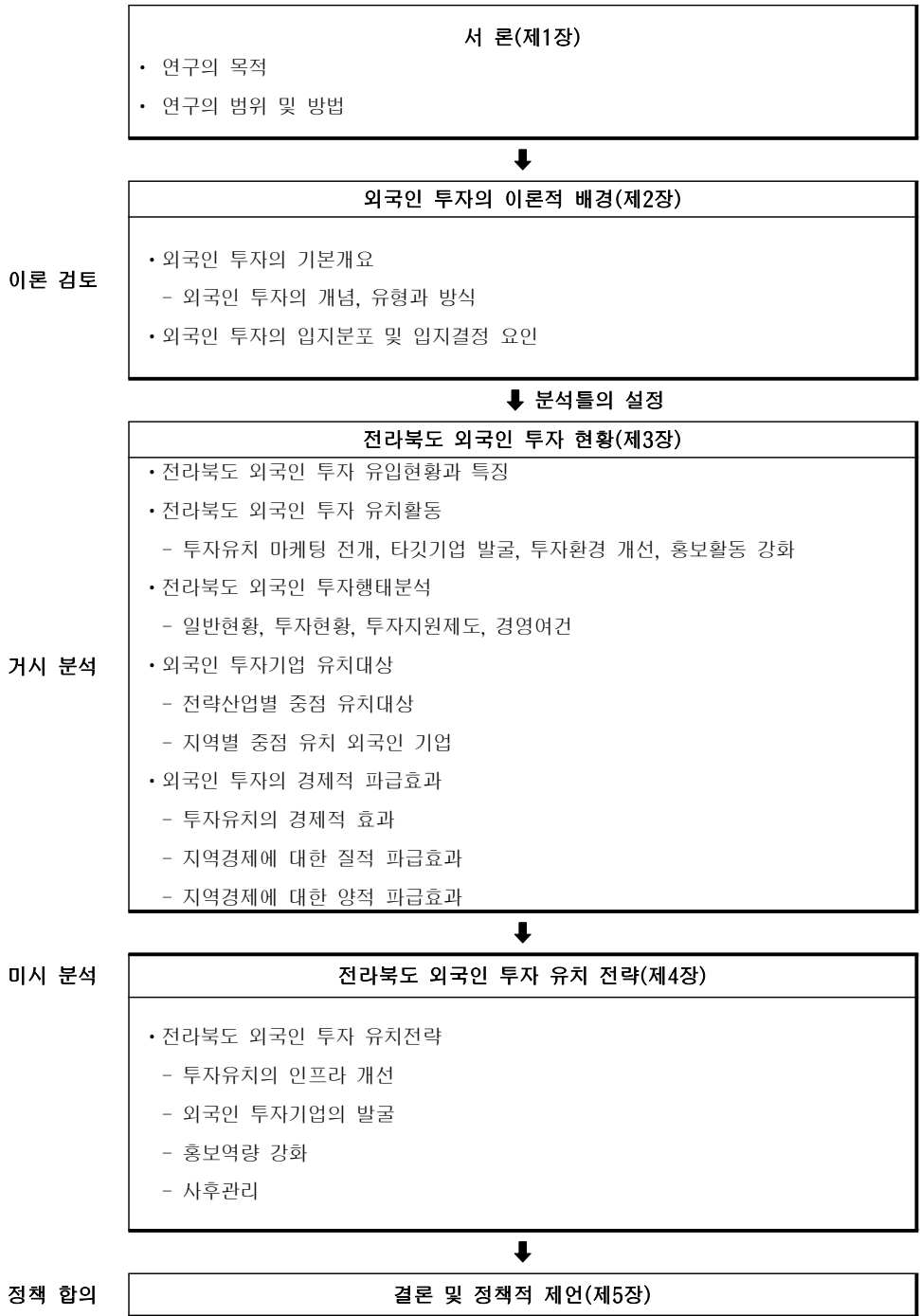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기본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전라북도의 국내·외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외국인 기업이 이전함에 따른 파급효과,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전략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별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웹 콘텐츠 등에서 각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전라북도의 외국인 기업유치여건과 유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외국기업 유치 여건과 관련된 최근 동향들을 파악하여 향후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야별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의 개념정립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기존 국내·외의 선행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입지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라북도에 투자된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투자현황, 투자지원제도, 경영여건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외국인 기업의 사후관리 및 입지 행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 파급효과와 질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고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북도의 외국인기업유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I -1> 연구의 방법

제 2 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외국인 투자의 개요
- 제 2 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제 2 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외국인 투자의 개요

1. 외국인 투자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산개념과 기업개념에 기초하여 각각 광의와 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자산개념에 기초한 광의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되어 새로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하고,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국내 실물자산의 소유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¹⁾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적 기준인 “계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로써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경영통제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투자행위를 하는 기업체” 중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등록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²⁾ 외국인 투자촉진법(’98년)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

1)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형태라 할 수 있다.
2) 국제적 기준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규정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핵심은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 참여이다.

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법 제2조1항). 둘째,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법 제2조2항). 셋째, 10/100미만이라도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시행령 제2조2항).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법 제2조1항). 다섯째,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 3항) 여섯째,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3항) 등이다.

<표 II-1>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범위

구분	내용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0/100미만이라도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투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취득(법인신설 또는 기존법인 증자지 신주인수) 기존주식취득(국내법인의 기발한 주식취득) 장기차관 방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투자금액 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 원 이상(외국인 투자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2,500만원 이상)이며 투자 금액의 상한은 없음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 다만, 외국인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 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
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47개 업종 제외)

2) 현행 외국인투자 제도

(1) 관련 법령 및 체계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98년 11월 발효, ’03년 12월 개정)’이며, 동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이 있고, 동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외에 외국인 투자위원회,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본원칙은 종래의 신고수리제에서 단순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종전이 신고수리제도는 신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나 법에서 정하는 단순신고제도는 신주취득, 기존주식 취득, 장기차관의 경우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은 사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2)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외국인투자의 대상업종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총 1,058개 업종 중 부분 개방업종 27개, 미개방 업종 2개를 제외한 1,029개 업종은 전면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신문발행업 등)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의무 부과 업종(내항여객운송업 등)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은 99.8%에 이르고 있다.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업종 중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동 요건에 부합될 경우인가를 받아 투자 및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3)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제한

외국인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다.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상의 하한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선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둘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셋째,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하다.

(4) 외국인투자 대우 및 보호

① Safeguard조항의 면제 및 대외송금 보장

외국환거래법상 천재지변·전시·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의 정지 또는 지급수단의 예치·매각의무 부과 등 기타 제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등의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내국민 동등대우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조세감면이나 입지선정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를 받는다.

③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투자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고, 관세청장(외국인투자 종합센터에 파견된 관세청 직원)이 현물출자의 이행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검사인의 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를 완화해 주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의 유형과 방식

1) 외국인 투자의 유형

자본은 일반적으로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될 경우 ‘내자’ 혹은 ‘내국인투자’라 하고 외국에서 조달될 경우 ‘외자’ 혹은 ‘외국인 투자’라 하며 외국인 투자는 보통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을 총칭한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 간접투자(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로 구분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 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외국인 간접투자는 경영지배나 통제목적 없이 단순히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는 등 보통 화폐자산만 이동하는 투자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제도상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소유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현금·자본재 또는 산업재산권 등의 자본적 가치물을 납입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상의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97년부터 시행된 외자도입 관련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및 그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일정요건의 5년 이상 장기차관도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표 II-2> 외국인 투자의 유형

구 분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
투자목적	이윤추구	자본 이득
투자주체	개인, 기업	기관투자자
경영참여여부	경영 참여	경영참여 없음
투자 기간	원칙적으로 장기	단기
투자 대상	주로 비상장기업 신설, 기존기업합병 등	상장기업

2) 외국인 투자의 방식

외국인 투자의 투자형태는 신주취득, 기존 주식취득, 장기차관, 그리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는 건당 5천만 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은 10%이상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³⁾ 다만, 외국인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자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흐름의 방향,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투자흐름의 방향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자국 내로 외국기업의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국의 입장에서 자금을 외국으로 투자하는 해외 직접투자로 구분한다.

둘째, 투자동기 및 전략에 따라, 시장 접근형과 생산 거점형, 확장형 투자와 방어형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접근형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기업특유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투자대상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하는 유형이고, 생산 거점형은 제3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거점의 투자유치국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형태이며, 방어형 투자는 투자대상국의 낮은 임금 등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형태이다.

셋째, 투자진출방식에 따라, 현지기업의 자본소유비율을 기준으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투자형태에 따라 신규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구분된다.

3) OECD의 정의에 따르면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 1인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로 간주한다.

<표 II-3> 투자전략 및 투자동기에 의한 유형구분

투자 유형	투자 동기
시장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시장과 판매망 유지 • 제3국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진출 및 현지생산(현지법인 설립, 자동차)
생산 효율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진출 • 노동집약적 산업(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합작, 전자산업)
원료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원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에 투자 • 생산물 : 현지수요 충족 또는 수출(자원개발 투자,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
지식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투자 • 유력계회사, 미국계회사와 M&A 등(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 현대, 삼성, LG 등 전자 산업)

자료: 건설교통부,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재인용.

제2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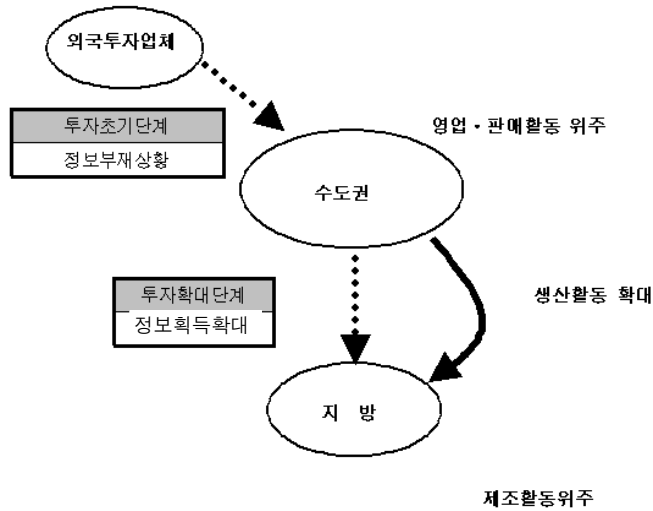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율, 투자국, 생산공정 단계 및 생산품 등 조직특성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투자전략 및 동기가 생산비 절감형 내지는 생산 거점형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인데 비해, 시장 개척형, 및 판매형의 경우는 국내 관련 시장규모와 배후시장이 근접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입지탐색 및 이동경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입지 선정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주요경로나 방법은 자체조사 분석방법이 전체 응답 업체의 5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11.1%),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및 기관(11.1%), 국내합작회사(9.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⁴⁾

4) 산업연구원,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제조업의 현황 분석, 2004.



<그림 II-1> 외국 투자기업의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그러나 소재 지역에 따라 지방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국내합작투자회사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는데 비해, 수도권 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및 관련기관들을 주요 정보 취득처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무상임대 등 지원시책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전문기관보다 자체조사 분석에 의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족 상황에서 지명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주로 서울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지해 있다가, 단독투자로 전환하여 생산활동으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및 지방으로 공장입지를 탐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3) 입지분포 경향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은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 주변지역 선호가설, 산업 집적지 선호가설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은 영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간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의 중심지 및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 지역들은 대개 잘 구비된 인프라 시설, 대규모 시장, 그리고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대도시나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분포 변화분석에서 '80년대에는 주로 중심지 및 대도시에 입지하던 기업들이 입지를 점차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확산되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진입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입지분포를 설명하는데 높은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주변지역 선호가설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증대 및 위험요인 감소, 지방입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그리고 전원적인 생산입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입지를 이전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80년대 영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변화분석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지원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집적지 선호가설은 기업 간 산업연계 및 지원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산업집적 및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에 기업들이 입지하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업 자체의 자기강화가설과 기업 네트워크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기강화가설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지역에 입지를 확보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입지지역에 대한 정보구득 및 거래업체 관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인접지역에 제2, 3의 공장을 분포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 네트워크 이론은 특히 제조업부문 가운데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자기강화현상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동일 지역 내에 집적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입지분포경향 이외에 특별경제지역,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일정 지역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집중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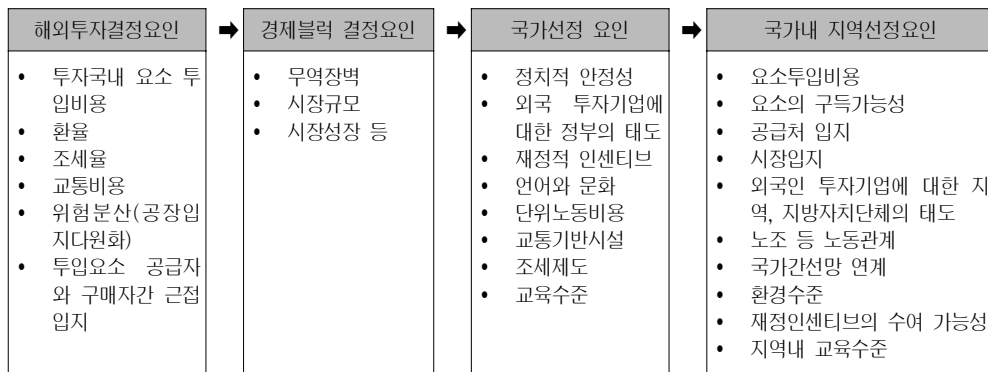
로 유치함으로써 집적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1) 입지결정특성⁵⁾

외국 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입지결정요인은 공간 단위별 입지결정요인 분석과 외국 투자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입지결정 요인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 투자기업은 세계지역별 경제블록, 국가, 지역 등 계층적 공간단위에 따라 상이한 입지결정요인이 작용한다. 기업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한 국가의 1인당 GNP, 노동비용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조세 및 관세 제도, 기업환경, 관광객 수, 수출비중 등의 시장상황들을 고려하고, 국가차원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의 개방성 등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각각 상이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공간 단위별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력 결정요인

5) 산업연구원, 2003년도 제조업 외국인 투자현황, 2003, 재인용.

2) 고용특성

제조업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는 기업규모, 생산공정단계 및 생산품 성격, 성숙도 등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조사업체의 경우도 조직특성에 따라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이는 고용특성에 따라 생산직 고용수요가 높은 업체들은 생산인력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전문·기술인력 조달이 용이한 관련업체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생산공정단계나 생산품 성격에 따라 부품형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최종·소비재형 외국 투자기업들은 대도시 고객업체들의 근접성을 주요 입지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98년 이후 투자한 신생기업 가운데 몇몇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제공 및 행정서비스 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투자유형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는 기업의 투자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율, 투자국 등 투자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 입지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동기가 생산비 절감 내지 생산거점형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 인데 비해, 시장·판로개척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국내 관련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첨단기술 지향형의 경우는 대학 및 전문가 확보여부, 관련 첨단기술업체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혁신지향적인 사회제도를 중시하고 있다. 투자동기에 따라 시장·판로개척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시장규모와 근접성, 교통접근성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생산 거점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생산인력의 조달용이성,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수출을 위한 항만, 도로 등 교통시설 접근성이 입지결정요인의 순위에서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인수합병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신설투자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는 달리 기존업체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입지결정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투자대상국내 입지지역의 선정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업체 인수합병 및 합작 투자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입지결정상의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유사 동종업종의 집적지역내 입지가 투자결정에 인센티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도권 및 지방의 외국인 전용공단 내에 입지한 단독 신설투자형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태도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정단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 성격과 생산공정단계별 입지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제조업 공정단계와 입지형태와의 관계는 기초소재 및 부품·조립형 제조업체는 물품조달 및 공급처와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물류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최종·완성품형 제조업체는 중간부품의 조달여부와 시장배후지역이 입지 선정 및 탐색과정에서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제조업의 입지형태와 유사성이 발견되나, 해외모기업과의 교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항만, 공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띤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자조달을 주로 하는 외국기업은 공항 및 항만과의 접근성 등이 입지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표 II-4> 투자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형태 분석

기업규모별	사례업체명 (생산제품)	본사, 공장지역	입지유형	입지형태 특성
기초소재형	UC사 (전지양극재료)	본사·공장 : 충남 천안 영업소 : 서울 서초구	계획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등 물류용이 지역 입지경향 (경남사천공항, 부산항만 사용)
중간·부품제	KT사 (적층세라믹콘덴서)	본사·공장 : 경남 사천	계획입지	
	ES사 (대구경강관)	본사·공장 : 경남 사천	계획입지	
최종·완성제	NS사 (산업용접착제 등)	본사·영업소 : 서울 강남구 공장 : 천안, 시화지구 연구소 : 부산 등	개별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업체, 시장 근접지역 입지경향
	VC사 (굴삭기)	영업소 : 서울 용산구 본사·공장 : 경남 창원	개별입지	
	SH사 (선박용 크레인, 감판기계)	본사·공장 : 전남 대불단지 (목포시 상호중공업 납품) 영업소 : 서울 영등포구	계획입지	

5) 투자진입방식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진입방식 여하는 입지분포 및 입지형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신설 투자형 업체들은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 내에 분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입지분포상의 뚜렷한 특성은 없다.

한편, 합작투자에서 단독투자로 전환한 업체나 영업활동에서 생산활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업체의 경우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도시에 입지하다가 점차 수도권 및 지방의 외국인전용단지로 이전하는 단계별 입지선정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례업체인 UV사는 합작투자 당시(1995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입지해 있다가 '00년 생산활동을 확대·병행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사례이다.

6) 투자동기

투자동기에 따른 입지분포 및 입지형태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소재지 분포에 있어서 업체들이 지방입지 비율이 높고 투자동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생산거점형 업체의 수도권 입지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판로개척형 업체들의 수도권 입지분포가 높으리라는 가정에 상치되는 현상이나, 외국인 업체들은 생산거점형 업체의 경우 대규모 생산인력의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판로개척형 업체들은 고객업체 및 대도시와 근접하고 국내 육상교통·물류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수도권 등에 입지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산거점형 업체가 시장·판로개척형이나 기술교류형 업체에 비해 계획입지 선호도가 현저하게 높다. 사례업체인 ID사(경기도 평택시), KT사(경남 사천시) 등은 생산거점형 업체로서 수도권 및 지방소재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에 입지해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동종업체 집적지 분포여부에 있어서 투자동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업용 및 위생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NS사의 경우는 고객업체 및 대규모 시장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본사를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으며, 공장은 전국적인 영업망 형성으로 인해 국내 육상교통이 용이한 천안지역에 두고 있다. 한편, 대구시에 입지한 사전조사업체인 CY사(섬유용 유연제 생산)의 경우는 계획입지는 아니지만 섬유산업 관련업종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해 유사·동종업체 지향적인 입지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7) 투자비율

유치업체들은 투자국별 입지분포 및 행태에 있어서 유럽 및 미주계가 일본이나 아시아계 업체에 비해 해외모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사 내지는 영업소를 서울에 두어 해외모기업과의 교류를 용이하게 수행하거나,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는 비디오폰 등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해 매일 혹은 수시로 해외모기업과 교류관계를 맺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율별 입지행태 특성은 투자진입방식과 상관성이 높다. 즉 합작투자에서 단독투자로 투자비율을 늘리는 경우, 사례업체들은 공장을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 내 외곽이나 중부권 등 기존에 확보한 영업망을 활용하기 위해 본사 및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현황

- 제 1 절 외국인 투자 유입의 현황과 특징
- 제 2 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 제 3 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의 행태 분석
- 제 4 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대상
- 제 5 절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제 3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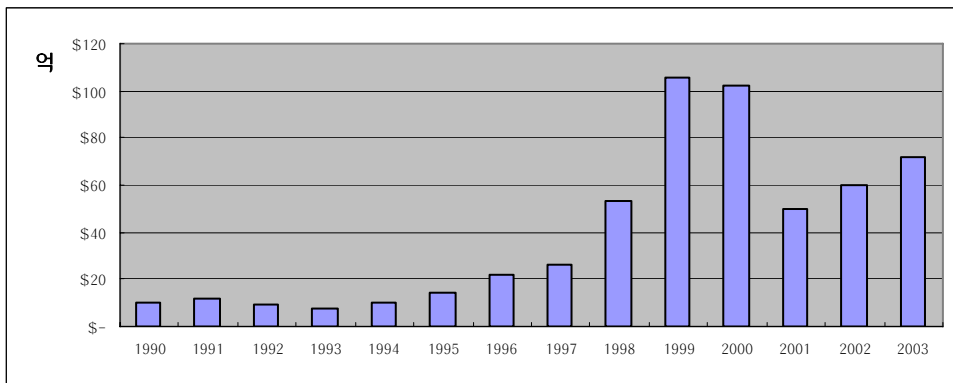
제1절 외국인 투자 유입의 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현황과 특징

1) 투자 유입

지난 '62년 이후 '03년 말까지 도착된 외국인 투자 총액은 494억3천만 달러인데, 이중 67%인 331억 달러는 '98년 이후 유입되었고, 신고기준으로는 '03년 말 현재 846억 달러이며 총 누적액으로 본 신고대비 도착비율은 58%로 나타났다.

'96년 이전의 신고대비 도착비율은 70%이상이었으나, '97년 이후 동비율이 하락하면서 '02년에는 40%, '03년에는 20%까지 낮아졌다.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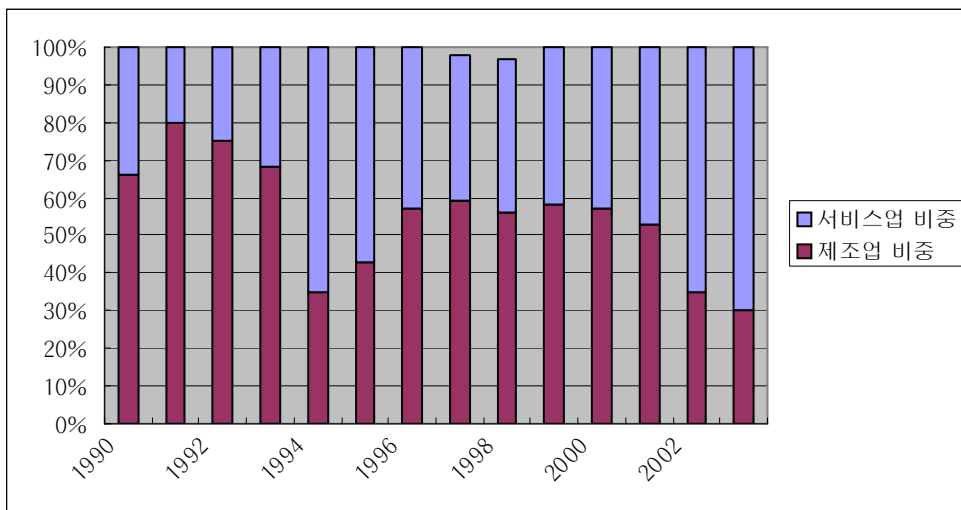
<그림 III-1> 외국인 투자 추이(도착기준)

이러한 유입 급증세는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은 것이고, 부실기업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련 기업의 해외 매각이 유도되었다. 국내의 사업환경과 경영기법, 거래 관행 등의 선진화 추진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00년 들어 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01년에는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선호도가 중국 등 여타 경쟁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근의 전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 경향의 영향이 더욱 크다.

세계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90년 0.3%에서 '02년 0.6%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비슷한 경제 규모의 여타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 총 잔액 비중은 '90년 2.1%에서 '02년 9.5%로 높아졌다가 '03년에는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인해 9.2%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2003.

<그림 III-2>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 업종별 유입현황 및 특징

(1)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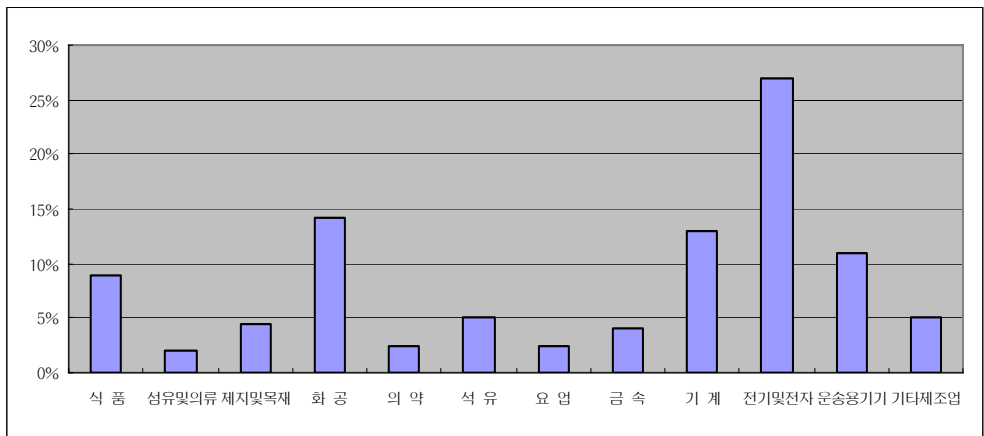
업종별 외국인 투자의 추이를 보면 '90년대 전반까지는 제조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서 높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50%대로 낮아져 '03년 현재에는 35%를 기록하고 있다. '62~'89년 동안의 제조업 비중은 65%, 서비스업 비중은

35%였다. 제조업 비중은 '91년 80%까지 높아졌다가 '94년에는 3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의 하락과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와 아울러 대외개방정책과 맞물려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통, 금융, 부동산 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서비스업으로의 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조업

제조업의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누계 기준으로 전기전자가 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공과 기계가 각각 14%, 운송용 기기 11% 순이다. 반면, 섬유·의류, 의약, 요업, 금속 등의 비중은 5% 미만으로 낮다.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2003.

<그림 III-3>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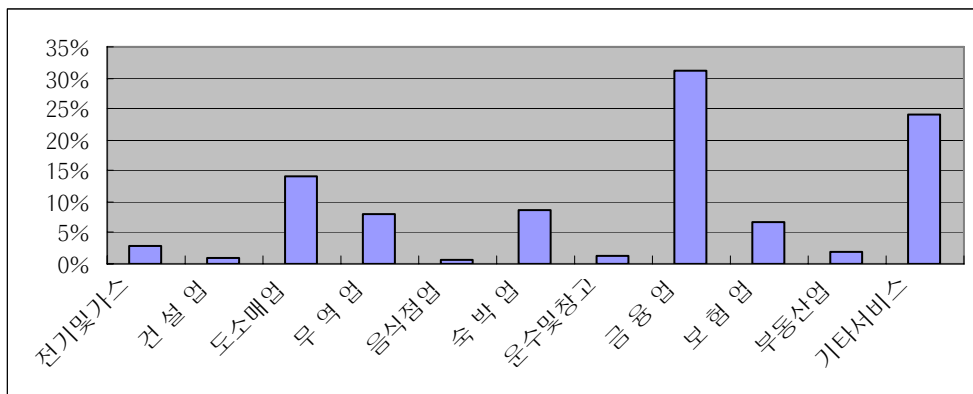
주요 제조업종의 기간별 외국인 투자 점유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기전자와 식품은 '60~'70년대에 비해 최근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화공은 줄어들고 있다.

운송용 기기는 '80년대 전반기에 활발히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01년 이후 대폭 감소하고, 기계는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으나 '01

년 이후 감소하였다.

(3)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별 비중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금융업 31%, 기타 서비스업 24%로 매우 높은 반면, 건설,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 부동산업 등은 2% 미만으로 낮다. 주요 서비스 업종의 기간별 외국인 투자 점유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금융업은 전 기간에 걸쳐 대략 2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편중이 심한 편이다.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2003.

<그림 III-4> 서비스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도소매업은 '90년대 전반까지 4%대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유통시장 개방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 최근에는 18%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업은 '90년대 중반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물류의 근간을 이루는 운수 창고업의 외국인 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 투자규모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70년~'75년까지 92,927천 달러(2.57%), '76년~'80년까지 65,780천 달러(1.82%), '81년~'85년까지 1,017천 달러(0.03%), '86년~'90년까지 206,069천 달러(5.71%), '91년~'95년까지 84,590천 달러(2.34%), '96년~'00년까지 2,303,246천 달러(63.79%), '01년~'05년까지 856,826천 달러(23.73%)로 전체 3,610,455천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별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유치된 기간은 '96년~'00년까지 2,302,246천 달러(63.79%)가 유치된 시기이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인 기간은 '81년~'85년까지 1,017천 달러(0.03%)로 나타났다.

<표 III-1> 연도별 외국인 투자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내 용 \ 기 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 계
외국인 투자액	92,927 (2.57)	65,780 (1.82)	1,017 (0.03)	206,069 (5.71)	84,590 (2.34)	2,303,246 (63.79)	856,826 (23.73)	3,610,455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주: ()안은 비중.

2) 업종별 투자현황

(1) 업종별 투자현황

업종별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금속산업에 615,032천 달러, 화공산업에 317,077천 달러, 섬유 및 의류산업에 7,572천 달러, 식품산업에 832,351천 달러, 전기 및 전자산업에 26,768천 달러, 운송기기산업에 2,167천 달러, 기계산업에 732,645천 달러, 제지 및 목재산업에 1,006,102천 달러, 서비스(관광)산업에 14,000천 달러, 기타 제조업에 2,740천 달러가 투자되었다.

연도별로 그 추이를 보면, '70년~'75년까지 금속산업에 92,105천 달러, '76년~

'80년 식품 51,893천 달러, '81년~'85년 금속 693천 달러, '86년~'90년 화공 174,089천 달러, '91년~'95년 화공 61,946천 달러, '96년~'00년 식품 679,957천 달러, '01년~'05년 기계 427,533천달러로 나타났다. 업종 중 전라북도에 가장 많이 투자된 업종은 제지 및 목재산업으로 1,006,102천 달러로 투자되었다. 또한 '01~'05년에 투자된 금액 856,826천달러로 이중 가장 많이 투자가 산업은 기계산업으로 427,533천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III-2> 업종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개)

업종 \ 기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 계
금속	92,105(1)	751(2)	693(3)	174,089(9)	20,875(1)	232,561(6)	93,958(12)	615,032(34)
화공	622(2)	0(0)	0(0)	20,652(3)	61,946(4)	70,407(9)	217,450(7)	317,077(25)
섬유 및 의류	200(1)	5,148(1)	182(1)	1,661(2)	100(1)	75(1)	206(3)	7,572(10)
식품	0(0)	51,893(2)	0(0)	122(1)	65(1)	679,957(7)	100,315(6)	832,352(17)
전기 및 전자	0(0)	6,670(2)	0(0)	9,545(4)	529(1)	7,024(2)	3,000(1)	26,768(10)
운송용기기	0(0)	0(0)	0(0)	0(0)	0(0)	2,070(1)	97(1)	2,167(2)
기계	0(0)	0(0)	0(0)	0(0)	62(1)	305,050(4)	427,533(9)	732,645(14)
제지및목재	0(0)	0(0)	0(0)	0(0)	0(0)	1,006,102(2)	0(0)	1,006,102(2)
서비스(관광)	0(0)	0(0)	0(0)	0(0)	0(0)	0(0)	14,000(1)	14,000(1)
기타제조업	0(0)	1,318(2)	142(1)	0(0)	1,013(1)	0(0)	267(1)	2,740(5)
합계	92,927(4)	65,780(9)	1,017(5)	206,069(19)	84,590(10)	2,303,246(32)	856,826(41)	3,610,455(12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주: ()는 업체수임

(2) 업종별 가동현황

외국인 기업체 가동현황을 보면, 가동 87개 업체(72.5%), 폐업 25개 업체(20.83%), 합병 2개 업체(1.67%), 휴업 1개 업체(0.83%), 준비 중 5개 업체(4.17%)로 나타났다. 가동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금속산업 23개 업체(26.44%)이고, 폐업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금속산업 11개 업체(44.00%)이며, 합병, 휴업, 준비 중인 업체들에 관한 산업별 비중 현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업종별 외국인 기업체 가동현황

(단위: 개, %)

업종 \ 상태	가동	폐업	합병	휴업	준비중	합계
금속	23(67.65) (26.44)	11(32.35) (44.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34(100.00) (28.33)
화학	21(84.00) (24.14)	2(8.00) (8.00)	0(0.00) (0.00)	1(4.00) (100.00)	1(4.00) (20.00)	25(100.00) (20.83)
섬유 및 의류	6(60.00) (6.90)	4(40.00) (16.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0(100.00) (8.33)
식품	12(70.59) (13.79)	3(17.65) (12.00)	0(0.00) (0.00)	0(0.00) (0.00)	2(11.76) (40.00)	17(100.00) (14.17)
전기 및 전자	5(50.00) (5.75)	3(30.00) (12.00)	2(20.00) (100.00)	0(0.00) (0.00)	0(0.00) (0.00)	10(100.00) (8.33)
운송용기기	2(100.00) (2.3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2(100.00) (1.67)
기계	12(85.71) (13.79)	0(0.00) (0.00)	0(0.00) (0.00)	0(0.00) (0.00)	2(14.29) (40.00)	14(100.00) (11.67)
제지 및 목재	2(100.00) (2.3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2(100.00) (1.67)
서비스(관광)	1(100.00) (1.15)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1(100.00) (0.83)
기타제조업	3(60.00) (3.45)	2(40.00) (8.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5(100.00) (4.17)
합계	87(72.50) (100.00)	25(20.83) (100.00)	2(1.67) (100.00)	1(0.83) (100.00)	5(4.17) (100.00)	120(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주: ()안은 비중.

3) 국가별 투자업체 수

(1) 국가별 투자현황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은 싱가포르 1,014,831천 달러, 독일, 900,260천 달러, 프랑스 514,927천 달러, 미국 422,155천 달러, 말레이시아 212,167천 달러, 일본 192,146천 달러, 영국 141,046천 달러, 네덜란드 55,682천 달러, 인도 51,272천 달러, 스위스 48,899천 달러, 캐나다 38,540천 달러, 벨기에 12,077천 달러, 대만 3,000천 달러, 홍콩 2,901천 달러로 나타났다.

<표 III-4>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투자금액	업체수	순위	국가	투자금액	업체수
1	싱가포르	1,014,831	5	9	인도	51,272	1
2	독일	900,260	10	10	스위스	48,899	2
3	프랑스	514,927	11	11	캐나다	38,540	2
4	미국	422,155	30	12	벨기에	12,077	1
5	말레이시아	212,167	3	13	대만	3,000	1
6	일본	192,146	41	14	홍콩	2,901	2
7	영국	141,046	2	15	중국	285	5
8	네덜란드	55,682	3	16	덴마크	267	1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05년 9월 현재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1,014,831천 달러로 나타났고, 업체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일본으로 41개 업체가 투자하였다.

(2) 업종별, 국가별 투자현황

업종별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면, 금속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미국으로 11개 업체(32.35%)에 투자했고, 화공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으로 13개 업체(52%)에 투자했으며, 섬유 및 의류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역시 일본으로 5개 업체(50%)가 투자하였다.

식품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미국으로 7개 업체(41.18%)에 투자했고, 전기 및 전자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으로 7개 업체(70%)에 투자했다. 기계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미국이 5개 업체(35.71%)에 투자했고, 독일이 4개 업체(28.57%)에 투자되었다.

<표 III-5> 업체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개, %)

업종	투자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금속	8	11	8	1	4	1	0	0	1	34
	(23.53)	(32.35)	(23.53)	(2.94)	(11.76)	(2.94)	(0.00)	(0.00)	(2.94)	(100.00)
화학	13	4	2	1	0	0	1	0	4	25
	(52.00)	(16.00)	(8.00)	(4.00)	(0.00)	(0.00)	(4.00)	(0.00)	(16.00)	(100.00)
섬유및의류	5	1	0	1	0	2	0	0	1	10
	(50.00)	(10.00)	(0.00)	(10.00)	(0.00)	(20.00)	(0.00)	(0.00)	(10.00)	(100.00)
식품	3	7	0	3	0	1	0	1	2	17
	(17.65)	(41.18)	(0.00)	(17.65)	(0.00)	(5.88)	(0.00)	(5.88)	(11.76)	(100.00)
전기및전자	7	0	0	0	0	0	1	1	1	10
	(70.00)	(0.00)	(0.00)	(0.00)	(0.00)	(0.00)	(10.00)	(10.00)	(10.00)	(100.00)
운송용기기	0	0	1	0	0	1	0	0	0	2
	(0.00)	(0.00)	(50.00)	(0.00)	(0.00)	(50.00)	(0.00)	(0.00)	(0.00)	(100.00)
기계	1	5	0	4	0	0	1	1	2	14
	(7.14)	(35.71)	(0.00)	(28.57)	(0.00)	(0.00)	(7.14)	(7.14)	(14.29)	(100.00)
제지및목재	0	1	0	0	1	0	0	0	0	2
	(0.00)	(50.00)	(0.00)	(0.00)	(50.00)	(0.00)	(0.00)	(0.00)	(0.00)	(100.00)
서비스(관광)	0	1	0	0	0	0	0	0	0	1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기타제조업	4	0	0	0	0	0	0	0	1	5
	(8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0)	(100.00)
합계	41	30	11	10	5	5	3	3	12	120
	(34.17)	(25.00)	(9.17)	(8.33)	(4.17)	(4.17)	(2.50)	(2.50)	(1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4) 가동, 폐업 현황

전라북도 외국인 업체의 가동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120개 업체 중 현재 92개 업체(76.67%)가 가동 중에 있는데, 가장 많은 폐업이 일어났던 기간은 '86년~'90년까지로 10개(40%)가 이 기간에 폐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 <표 III-6>으로 정리하였다.

<표 III-6> 연도별 휴·폐업 현황

(단위: 개, %)

상태	기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계
휴업	1(1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폐업	0(0.00)	3(12.00)	3(12.00)	10(40.00)	3(12.00)	4(16.00)	2(8.00)	25(100.00)
가동	3(3.26)	5(5.43)	2(2.17)	9(9.78)	7(7.61)	27(29.35)	39(42.39)	92(100.00)
합병	0(0.00)	1(50.00)	0(0.00)	0(0.00)	0(0.00)	1(50.00)	0(0.00)	2(100.00)
계	4(3.33)	9(7.50)	5(4.17)	19(15.83)	10(8.33)	32(26.67)	41(34.17)	120(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5) 투자기업의 유형

(1) 투자유형별 기업체 수

전라북도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형은 합작투자의 경우가 74개 업체인데, 기간 별로 가장 많은 합작투자가 이루어진 기간은 '96년~'00년까지 21개 업체(28.38%)가 합작 투자되었다. 다음으로 총 35개 업체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기간은 최근 '01년~'05년까지로 18개 업체(51.43%)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총 11개 업체에서 M&A가 이루어졌는데, 기간별로 분석시 가장 많은 M&A가 이루어진 기간은 전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있었던 IMF를 전후한 '96년~'00년에 32개 업체(26.67%)에서 이루어졌다.

<표 III-7> 외국기업의 투자유형

(단위: 개, %)

기간 투자유형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 계
합작투자	4(5.41)	6(8.11)	5(6.76)	13(17.57)	6(8.11)	21(28.38)	19(25.68)	74(100.00)
직접투자	0(0.00)	3(8.57)	0(0.00)	6(17.14)	4(11.43)	4(11.43)	18(51.43)	35(100.00)
M&A	0(0.00)	0(0.00)	0(0.00)	0(0.00)	0(0.00)	7(63.64)	4(36.36)	11(100.00)
계	4(3.33)	9(7.50)	5(4.17)	19(15.83)	10(8.33)	32(26.67)	41(34.17)	120(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2) 투자 유형별 투자금액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현황은 합작투자 1,182,328천 달러, 직접투자 384,892천 달러, M&A 2,033,235천 달러로 나타났다. 기간별 합작투자액 규모가 가장 큰 기간은 '96년~'00년까지로 611,540천 달러(51.72%)가 유치되었고, 직접투자액 규모가 가장 컸던 기간은 최근 '01년~'05년까지로 222,779천 달러(56.42%)가 유치되었으며, M&A가 금액규모면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기간은 역시 IMF를 전후한 시기인 '96년~'00년까지로 1,643,545천 달러 규모의 M&A가 이루어졌다.

총체적으로 투자금액 규모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기간은 역시 경제적 위기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의 노력했던 IMF를 전후한 '96년~'00년까지이고, 이 기간에 외국인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8>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투자유형 \ 기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 계
합작투자	92,927	27,683	1,017	199,725	5,079	611,540	244,357	1,182,328
	(7.86)	(2.34)	(0.09)	(16.89)	(0.43)	(51.72)	(20.67)	(100.00)
직접투자	0	38,097	0	6,344	79,511	48,161	222,779	394,892
	(0.00)	(9.65)	(0.00)	(1.61)	(20.13)	(12.20)	(56.42)	(100.00)
M&A	0	0	0	0	0	1,643,545	389,690	2,033,235
	(0.00)	(0.00)	(0.00)	(0.00)	(0.00)	(80.83)	(19.17)	(100.00)
계	92,927	65,780	1,017	206,069	84,590	2,303,246	856,826	3,610,455
	(2.57)	(1.82)	(0.03)	(5.71)	(2.34)	(63.79)	(23.73)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3) 투자유형에 따른 가동현황

투자 유형에 따른 가동업체 수에 대한 현황은 합작투자의 경우 총 57개 업체 중 32개 업체(56.14%)가 가동 중이고, 직접투자의 경우 총 25개 업체 중 18개 업체(72%)가 가동 중에 있으며, M&A업체의 경우 10개 업체 모두가 가동 중에 있다.

증설·증자와 증설투자 업체들도 각각 7개, 증자 M&A 1개 업체 모두 가동 중이고, 신규가동 9개와 지분인수 업체 3개 업체도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표 III-9> 투자유형에 따른 가동현황

(단위: 개, %)

투자유형 \ 상 태	가동	폐업	합병	휴업	준비중	계
합작투자	32(56.14)	19(33.33)	2(3.51)	1(1.75)	3(5.26)	57(100.00)
	(36.78)	(76.00)	(100.00)	(100.00)	(60.00)	(47.50)
직접투자	18(72.00)	6(24.00)	0(0.00)	0(0.00)	1(4.00)	25(100.00)
	(20.69)	(24.00)	(0.00)	(0.00)	(20.00)	(20.83)
M&A	10(100.00)	0(0.00)	0(0.00)	0(0.00)	0(0.00)	10(100.00)
	(11.49)	(0.00)	(0.00)	(0.00)	(0.00)	(8.33)
증설·증자	7(58.33)	0(0.00)	0(0.00)	0(0.00)	0(0.00)	7(100.00)
	(8.05)	(0.00)	(0.00)	(0.00)	(0.00)	(5.83)
증설투자	7(350.00)	0(0.00)	0(0.00)	0(0.00)	0(0.00)	7(100.00)
	(8.05)	(0.00)	(0.00)	(0.00)	(0.00)	(5.83)
증자 M&A	1(1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1.15)	(0.00)	(0.00)	(0.00)	(0.00)	(0.83)
신규	9(90.00)	0(0.00)	0(0.00)	0(0.00)	1(10.00)	10(100.00)
	(10.34)	(0.00)	(0.00)	(0.00)	(20.00)	(8.33)
지분인수	3(100.00)	0(0.00)	0(0.00)	0(0.00)	0(0.00)	3(100.00)
	(3.45)	(0.00)	(0.00)	(0.00)	(0.00)	(2.50)
계	87(72.50)	25(20.83)	2(1.67)	1(0.83)	5(4.17)	120(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4) 업종에 따른 투자유형

업종에 따른 투자유형은 금속업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투자유형은 총 34개 금속업체 중 18개 업체(52.94%)가 합작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공업체는 전체 25개업 업체 중 합작투자가 9개 업체(36%)로 가장 비중이 크며, 섬유 및 의류업체는 10개 업체 중 6개 업체(60%)가 합작투자형태였다.

전기 및 전자 10개 업체 중 8개 업체(80%)가 합작투자형태이고, 운송용기기 2개 업체 중 1개 업체, 기계 14개 업체 중 6개 업체(42.86%), 제지 및 목재 2개 업체 중 1개 업체, 기타제조업 5개 업체 중 2개 업체(40%)가 합작투자 형태로 나타났다.

<표 III-10> 투자유형에 따른 업종현황

(단위: 개, %)

업종	투자유형								
	합작투자	직접투자	M&A	증설·증자	증설투자	증자, M&A	신규	지분인수	합계
금속	18(52.94)	7(20.59)	0(0.00)	3(8.82)	4(11.76)	0(0.00)	1(2.94)	1(2.94)	34(100.00)
	(31.03)	(29.17)	(0.00)	(42.86)	(57.14)	(0.00)	(10.00)	(33.33)	(28.33)
화공	9(36.00)	6(24.00)	6(24.00)	2(8.00)	2(8.00)	0(0.00)	0(0.00)	0(0.00)	25(100.00)
	(15.52)	(25.00)	(60.00)	(28.57)	(28.57)	(0.00)	(0.00)	(0.00)	(20.83)
섬유 및 의류	6(60.00)	1(10.00)	0(0.00)	1(10.00)	0(0.00)	0(0.00)	1(10.00)	1(10.00)	10(100.00)
	(10.34)	(4.17)	(0.00)	(14.29)	(0.00)	(0.00)	(10.00)	(33.33)	(8.33)
식품	6(35.29)	5(29.41)	2(11.76)	1(5.88)	1(5.88)	0(0.00)	2(11.76)	0(0.00)	17(100.00)
	(10.34)	(20.83)	(20.00)	(14.29)	(14.29)	(0.00)	(20.00)	(0.00)	(14.17)
전기 및 전자	8(80.00)	1(10.00)	0(0.00)	0(0.00)	0(0.00)	0(0.00)	1(10.00)	0(0.00)	10(100.00)
	(13.79)	(4.17)	(0.00)	(0.00)	(0.00)	(0.00)	(10.00)	(0.00)	(8.33)
운송용기기	1(5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50.00)	0(0.00)	2(100.00)
	(1.72)	(0.00)	(0.00)	(0.00)	(0.00)	(0.00)	(10.00)	(0.00)	(1.67)
기계	6(42.86)	2(14.29)	1(7.14)	0(0.00)	0(0.00)	1(7.14)	3(21.43)	1(7.14)	14(100.00)
	(10.34)	(8.33)	(10.00)	(0.00)	(0.00)	(100.00)	(30.00)	(33.33)	(11.67)
제지 및 목재	1(50.00)	0(0.00)	1(5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100.00)
	(1.72)	(0.00)	(10.00)	(0.00)	(0.00)	(0.00)	(0.00)	(0.00)	(1.67)
서비스(관광)	1(1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1.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3)
기타제조업	2(40.00)	2(40.00)	0(0.00)	0(0.00)	0(0.00)	0(0.00)	1(20.00)	0(0.00)	5(100.00)
	(3.45)	(8.33)	(0.00)	(0.00)	(0.00)	(0.00)	(10.00)	(0.00)	(4.17)
합계	58(48.33)	24(20.00)	10(8.33)	7(5.83)	7(5.83)	1(0.83)	10(8.33)	3(2.50)	120(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6) 지역별 투자 유치 현황

(1) 지역별 투자 유치 현황

지역별 외국인 투자업체 수는 전주시의 8개 업체(6.67%), 익산시의 53개 업체(44.17%), 군산시의 34개 업체(28.33%), 완주군의 9개 업체(7.50%), 정읍시의 8개 업체(6.67%), 남원시의 2개 업체(1.67%), 고창군의 1개 업체(0.83%), 임실군의 1개 업체, 김제시의 3개 업체(2.50%), 무주군 1개 업체(0.83%)로 조사되어 수출자유지역과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는 익산과 군산에 외국인 투자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지역별 외국기업 유치현황

(단위: 개, %)

지역 \ 기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합 계
전 주	0(0.00)	0(0.00)	0(0.00)	1(12.50)	0(0.00)	3(37.50)	4(50.00)	8(100.00)
	(0.00)	(0.00)	(0.00)	(5.26)	(0.00)	(9.38)	(9.76)	(6.67)
익 산	2(3.77)	6(11.32)	3(5.66)	13(24.53)	5(9.43)	11(20.75)	13(24.53)	53(100.00)
	(50.00)	(66.67)	(60.00)	(68.42)	(50.00)	(34.38)	(31.71)	(44.17)
군 산	2(5.88)	2(5.88)	1(2.94)	2(5.88)	3(8.82)	9(26.47)	15(44.12)	34(100.00)
	(50.00)	(22.22)	(20.00)	(10.53)	(30.00)	(28.13)	(36.59)	(28.33)
완 주	0(0.00)	0(0.00)	0(0.00)	1(11.11)	0(0.00)	3(33.33)	5(55.56)	9(100.00)
	(0.00)	(0.00)	(0.00)	(5.26)	(0.00)	(9.38)	(12.20)	(7.50)
정 읍	0(0.00)	0(0.00)	1(12.50)	0(0.00)	1(12.50)	5(62.50)	1(12.50)	8(100.00)
	(0.00)	(0.00)	(20.00)	(0.00)	(10.00)	(15.63)	(2.44)	(6.67)
남 원	0(0.00)	0(0.00)	0(0.00)	1(50.00)	0(0.00)	0(0.00)	1(50.00)	2(100.00)
	(0.00)	(0.00)	(0.00)	(5.26)	(0.00)	(0.00)	(2.44)	(1.67)
고 창	0(0.00)	0(0.00)	0(0.00)	1(100.00)	0(0.00)	0(0.00)	0(0.00)	1(100.00)
	(0.00)	(0.00)	(0.00)	(5.26)	(0.00)	(0.00)	(0.00)	(0.83)
임 실	0(0.00)	1(1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0.00)	(11.11)	(0.00)	(0.00)	(0.00)	(0.00)	(0.00)	(0.83)
김 제	0(0.00)	0(0.00)	0(0.00)	0(0.00)	1(33.33)	1(33.33)	1(33.33)	3(100.00)
	(0.00)	(0.00)	(0.00)	(0.00)	(10.00)	(3.13)	(2.44)	(2.50)
무 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1(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4)	(0.83)
계	4(3.33)	9(7.50)	5(4.17)	19(15.83)	10(8.33)	32(26.67)	41(34.17)	120(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2) 지역에 따른 가동현황

지역에 따른 가동현황은 전주시에 8개 업체 모두가 가동 중에 있고, 익산시에 58개 업체 중 30개 업체(56.6%)가 가동 중이며, 군산시의 34개 업체 중 30개 업체(88.24%), 완주군의 9개 업체 중 6개 업체(66.67%), 정읍시 8개 업체 중 7개 업체(87.5%), 남원시는 2개 업체 모두가 가동 중에 있다.

임실군과 무주군에 각각 유치되었던 1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이지만, 김제시 3개 업체 중 1개 업체(33.3%), 고창에 유일하게 투자가 유치되었던 1개 업체는 폐업했다.

<표 III-12> 지역에 따른 가동현황

(단위: 개, %)

지역 \ 상 태	가동	폐업	합병	휴업	준비중	계
전 주	8(100.00)	0(0.00)	0(0.00)	0(0.00)	0(0.00)	8(100.00)
	(9.20)	(0.00)	(0.00)	(0.00)	(0.00)	(6.67)
익 산	30(56.60)	19(35.85)	2(3.77)	1(1.89)	1(1.89)	53(100.00)
	(34.48)	(76.00)	(100.00)	(100.00)	(20.00)	(44.17)
군 산	30(88.24)	2(5.88)	0(0.00)	0(0.00)	2(5.88)	34(100.00)
	(34.48)	(8.00)	(0.00)	(0.00)	(40.00)	(28.33)
완 주	6(66.67)	1(11.11)	0(0.00)	0(0.00)	2(22.22)	9(100.00)
	(6.90)	(4.00)	(0.00)	(0.00)	(40.00)	(7.50)
정 읍	7(87.50)	1(12.50)	0(0.00)	0(0.00)	0(0.00)	8(100.00)
	(8.05)	(4.00)	(0.00)	(0.00)	(0.00)	(6.67)
남 원	2(100.00)	0(0.00)	0(0.00)	0(0.00)	0(0.00)	2(100.00)
	(2.30)	(0.00)	(0.00)	(0.00)	(0.00)	(1.67)
고 창	0(0.00)	1(100.00)	0(0.00)	0(0.00)	0(0.00)	1(100.00)
	(0.00)	(4.00)	(0.00)	(0.00)	(0.00)	(0.83)
임 실	1(1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1.15)	(0.00)	(0.00)	(0.00)	(0.00)	(0.83)
김 제	2(66.67)	1(33.33)	0(0.00)	0(0.00)	0(0.00)	3(100.00)
	(2.30)	(4.00)	(0.00)	(0.00)	(0.00)	(2.50)
무 주	1(100.00)	0(0.00)	0(0.00)	0(0.00)	0(0.00)	1(100.00)
	(1.15)	(0.00)	(0.00)	(0.00)	(0.00)	(0.83)
계	87(72.50)	25(20.83)	2(1.67)	1(0.83)	5(4.17)	120(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7) 투자비율 현황

전라북도 업종별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현황자료를 정리한 결과 조사대상 109개 업체 중 100% 투자업체가 43개 업체(39.45%), 투자비율이 99%~50%인 업체는 23개 업체(21.10%), 투자비율이 49%~0%인 업체는 43개 업체(39.45%)로 조사되었다.

투자비율 100%인 43개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화공업체 15개 업체(34.88%)이고, 투자비율 99%~50%인 23개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금속업체 9개 업체(39.13%)이며, 투자비율 49%~0%인 43개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역시 금속업체 16개 업체(37.21%)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투자 비율별 외국기업 유치 현황

(단위: 개, %)

업종 비율	금 속	화 공	섬유 및 의류	식 품	전기 및 전자	운송용 기 기	기 계	제지 및 목재	서비스	기 타 제조업	합계
100%	6(13.95)	15(34.88)	3(6.98)	9(20.93)	2(4.65)	1(2.33)	3(6.98)	1(2.33)	0(0.00)	3(6.98)	43(100.00)
	(19.35)	(62.50)	(37.50)	(56.25)	(20.00)	(50.00)	(30.00)	(50.00)	(0.00)	(60.00)	(39.45)
99~ 50%	9(39.13)	4(17.39)	1(4.35)	2(8.70)	4(17.39)	0(0.00)	3(13.04)	0(0.00)	0(0.00)	0(0.00)	23(100.00)
	(29.03)	(16.67)	(12.50)	(12.50)	(40.00)	(0.00)	(30.00)	(0.00)	(0.00)	(0.00)	(21.10)
49~ 0%	16(37.21)	5(11.63)	4(9.30)	5(11.63)	4(9.30)	1(2.33)	4(9.30)	1(2.33)	1(2.33)	2(4.65)	43(100.00)
	(51.61)	(20.83)	(50.00)	(31.25)	(40.00)	(50.00)	(40.00)	(50.00)	(100.00)	(40.00)	(39.45)
계	31(28.44)	24(22.02)	8(7.34)	16(14.68)	10(9.17)	2(1.83)	10(9.17)	2(1.83)	1(0.92)	5(4.59)	109(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전라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005.

제2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1.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기계부품·물류 등의 산업을 위주로 하여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상담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사업개요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개요를 살펴보면, 자동차·기계·물류 등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사절단을 6회 파견했고, 효율적인 해외 투자유치 사업의 전담 마케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의 산업단지와 군장신행 등의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추진상황과 성과

우선 전략산업별로 맞춤형 투자유치사절단을 다음의 지역과 행사에 6회에 걸쳐 파견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투자박람회에 참가했고, 미국 LA·시애틀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했으며, 노르웨이·영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했다. 또한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에 투자사절단을 각각 파견했으나 이러한 투자유치사절단의 파견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아울러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설명을 목적으로 마케팅 팀을 총 4회에 걸쳐 다음 지역에 파견했다. 대표적으로 리나마사 유치를 위해 캐나다에 마케팅팀을 파견하였고, 라보뱅크의 투자홍보를 위한 홍콩방문에 마케팅팀을 파견했으며, 스위스·독일의 등의 타깃기업을 방문했다. 또한 한미태평양 지자체 투자설명회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유일한 성과로 캐나다 리나마사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7천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대한 MOU를 작성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라보뱅크의 투자홍보는 실패했으며, 이외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현재 전라북도는 마케팅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이 필요하다.

3) 향후계획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빈약함을 통하여 향후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전략산업별로 맞춤형 투자유치사절단의 면담기업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록 전라북도의 현황과 특징, 투자인센티브 등이 담긴 최신자료들을 수집하고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의지와 지지를 담고 있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나마사 등과 같이 MOU가 체결된 투자기업을 비롯한 투자예정기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등의 행정지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투자유치 타깃기업 CEO초청 투자설명회

국내·외 외국기업인과 잠재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전북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한 투자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이고 성과중심의 투자유치를 도모했다.

1) 사업개요

투자유치 타깃기업들의 CEO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사업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외국기업인협회 등 對韓투자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하여 2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투자유치 대상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하여 10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해외동포기업인 및 중국화교상공인들을 초청하여 각각 1회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투자설명회의 추진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추진상황과 성과

외국인 기업과 단체를 초청하여 추진한 행사로는 팬 아시아 페이퍼 대표이사 등의 방문과, 주한독일경제인협회를 초청했고, 주한 유럽연합상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으며, 미국 신재생에너지투자단의 방문이 있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기업인 200여명과 투자상담을 하였다. 리나마사 투자협약식을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체결하였고, 주한 일본기업인클럽(JETRO)과 주한유럽연합 중견간부들을 각각 초청했다. 일본 미쓰비시사 등의 투자기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일본 도요코세이의 투자가들과 면담을 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했고,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세계화상대회에 참가했으며, 이때 세계화상대회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했다. 영국의 에너지 투자관계자들과 면담을 했고, 타깃기업 CEO들의 초청행사로 일본 아테카그룹 사장단이 11월 3일 방문했고, 리나마사 등의 초청을 12월 중 추진 중에 있다.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화상대회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제4회 한상대회를 참여하여 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1,000여명의 재외동포기업인들과 국내기업인들에게 투자홍보 브로슈어를 배포했고, 전북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소기의 성과로써 현재 도내 우수기업 10개 참여업체와 해외기업인들 사이에 수출상담 20건이 진행 중에 있다.

다음으로 제8차 세계화상대회에 참여하여 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1,500여명의 화교인과 국내참가자 등이 방문하여 이들에게 도의 투자홍보 브로슈어 배포 및 도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환경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고, 화상초정 전라북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투자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새만금 등 산업시찰을 했다.

3.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외국기업들이 투자유치를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 중의 하나인 교육인프라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추가적인 증설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1) 사업개요

외국인 투자환경 중 정주공간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외국인학교 운영 지원과 외투기업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했고,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최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예가 50년간 토지의 장기무상 임대 제도 및 50억 원 이내의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이다.

2) 추진상황과 성과

주요한 사업들의 추진상황과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북 외국인학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국비 운영비의 지원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학교설립일로부터 3년간의 지원을 10년 내 5회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했고, 전북외국인학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리나마사, GM대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소개를 추진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했다. 리나마사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의 지정을 건의하여 확정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사전담관제를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했다.

3) 향후계획

향후 전북외국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이고, 최적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및 추가 증설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4.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북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유망기업들의 D/B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희망기업들에게 홍보(IR)자료들을 제작하기 위

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투자정보 확보 및 유력한 잠재 투자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사업개요

잠재적 투자가들의 발굴과 이에 대한 마케팅을 위한 조사자료들을 D/B로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또한 해외 유망 대상기업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였다. 외국인 투자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업종별, 산업단지별로 타깃화된 투자유치 기업들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그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추진상황과 성과

우선 자동차부품업체 350개사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투자사절단 접촉기업과 對韓투자 유력기업 등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부품업체 350개 사들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투자환경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을 담은 홍보물 9종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라북도 투자환경을 상세히 담은 안내책자와 동영상 CD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다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외자유치를 특집으로 준비한 홍보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코리아헤럴드 특집판, 아리랑TV에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CF를 실어 홍보하였다.

3) 향후계획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자료들을 번역하여 이를 D/B로 구축함과 동시에 대상기업들을 중점관리하고 각종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타깃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투자안내 홍보물,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특집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

다.

5.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시사점

1) 투자유치 시스템의 체계화

전라북도의 외국기업유치 시스템은 전라북도의 핵심 축의 전략으로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외국유치 정책은 안정적인 외환확보, 구조조정 원활화, 고용촉진 등 단기적인 현안에 해결에 치중하였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외국기업 유치가 전략에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2) 외국기업유치 조직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

외국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조직은 많으나, 기능이 분산되어 지원기관 간, 도·시·군 간에 담당조직 등 유치 관련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고할 수 없다. 외국의 사례에 보듯이 싱가포르, 아일랜드, 프랑스 등은 지역별로 전담조직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시책 위주에서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전환 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의 일원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⁶⁾.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라북도 내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의 제공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6)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다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98)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 투자지역 후보지 선정·개발·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노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토록 개정하였다.

3) 유치대상 기업과의 밀착지원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제약, 심사에 대한 부담 등이 있다.

또한 외국 투자기업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라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도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지원시책은 투자비율, 투자액, 고용규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입지지역, 유형별 지역파급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투자인센티브 제공이 곤란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국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유치활동 전개를 하고 있다. 특히 8개의 지역별 유치기관이 있으며 각 지역 유치기관은 독자적인 지역전담기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 수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라북도는 지역별 유치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4) 인적 네트워크 통한 마케팅

전문성 부족, 광고홍보 등으로 인해 고객밀착형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글로벌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마케팅 전문가와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도 필요하다.

유치실적과 연계된 성과급 부여, 유치활동의 자율권 보장 등도 정비가 필요하다. 유치대상 외국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효율적 사후관리

외국인 기업유치는 유치단계에만 치중하여 지원시책을 제공하는 반면, 도내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현재 전라북도 외국기업체는 휴·폐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체가 투자확

대 시 현재 입지지역에 희망하고 있어 신규투자유치와 함께 사후관리는 기존 업체의 투자확대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6)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의 기업유치

전라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 내 유치촉진을 통해 지역고용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병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지역별 산업 포지셔닝 전략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정책형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3절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의 행태 분석

본 절은 전북 소재 외국인투자 가동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에 관한 주요 실태자료를 일반현황, 투자현황, 투자지원제도, 경영여건 등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1. 일반현황

1) 설립(투자)연도

전북 소재 설문응답 업체들 중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업체들의 설립(투자)연도를 조사한 결과 '57년 최초로 군산의 한국유리공업이 프랑스로의 투자기업이 된 이후 '02년까지 총 30개 업체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까지 총 4개 업체(13.3%)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80년대에는 12개 업체(40.0%), '90년대 10개 업체(33.3%), '00년, '01년, '02년에는 각각 1개, 1개, 2개 업체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설립연도(투자)

(단위: 개, %)

구 분	설립업체수	비율
'02년	2	6.7
'01년	1	3.3
'00년	1	3.3
'90년대	10	33.3
'80년대	12	40.0
'70년대	4	13.3
계	30	100.0

2) 투자국 현황

응답업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으로 11개 업체(36.7%)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5개 업체(16.7%)에 투자했으며, 미국과 독일이 각각 4개 업체(13.3%)와 3개 업체(10.0%)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타 국가들은 각각 1개 업체에 투자하였다.

<표 III-15> 투자국 현황

(단위: 개, %)

구 분	투자국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응답	일본	11	35.5	36.7
	프랑스	5	16.1	16.7
	미국	4	12.9	13.3
	독일	3	9.7	10.0
	중국	1	3.2	3.3
	영국	1	3.2	3.3
	호주	1	3.2	3.3
	말레이시	1	3.2	3.3
	스위스	1	3.2	3.3
	덴마크	1	3.2	3.3
	대만	1	3.2	3.3
	소계	30	96.8	100.0
무응답		1	3.2	
합 계		31	100.0	

3) 제품형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생산 제품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인 16개 업체 (55.2%)가 최종제품(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0개 업체 (34.5%)는 중간재(부품)를 생산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개 업체(10.3%)가 기초소재(원자재)를 생산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6> 생산 제품의 형태

(단위: 개, %)

구분	제품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응답	최종제품, 완성품	16	51.6	55.2
	중간재, 부품	10	32.3	34.5
	기초소재, 원자재	3	9.7	10.3
	소 계	29	93.5	100.0
	무응답	2	6.5	
	합 계	31	100.0	

4) 투자형태

전북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단독투자의 신설법인’이 11개 업체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투자의 기존업체 인수’가 10개 업체 (32.3%)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내기업과 자본합작에 의한 신설법인’과 ‘국내기업과 자본합작에 의한 기존업체 인수’가 각각 6개 업체(19.4%), 3개 업체(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외국인 투자 형태

(단위: 개, %)

투자 형태	빈도	퍼센트
단독투자의 신설법인	11	35.5
단독투자의 기존업체 인수	10	32.3
국내기업과 자본합작에 의한 신설법인	6	19.4
국내기업과 자본합작에 의한 기존업체 인수	3	9.7
기 타	1	3.2
합 계	31	100.0

2. 투자현황

1) 투자동기

전북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투자동기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투자 동기는 ‘고객 및 시장확보’로 8개 업체(24.2%)가 이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7개 업체(21.2%)는 ‘저렴한 용지’에 의해 투자하였으며, ‘편리한 교통접근’,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저렴한 노무비’에 의한 투자가 각각 3개 업체(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투자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투자동기에 따라 조사업체들은 시장·판로형, 생산비 절감형 및 생산거점형, 기술 교류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시장·판로 개척형은 전라북도 투자동기가 국내시장을 목적으로 이루진 형태이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 거점형은 전라북도의 높은 생산성이나 낮은 인건비 등을 목적으로 생산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기술교류형은 전라북도의 첨단산업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술교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 형태를 말한다.

시기별로 보면, 시장·판로 개척형은 '00년도 이후에 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생산비 절감 및 생산 거점형은 주로 '00년도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전라북도 투자동기로 작용을 했다. 한편 기술 교류형의 절대 비중은 낮지만 최근에 투자되는 기업을 보면 투자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5대 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협력하기 위해 투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I-18> 외국인 투자동기(다중응답)

(단위: 개, %)

투자동기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고객 및 시장확보	8	24.2	27.6
저렴한 용지	7	21.2	24.1
편리한 교통접근	3	9.1	10.3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3	9.1	10.3
저렴한 노무비	3	9.1	10.3
자치단체의 유인정책, 제반혜택	1	3.0	3.4
지자체와의 교류관계	1	3.0	3.4
기타	7	21.2	24.1
합 계	33	100.0	113.8

2) 전북 투자환경의 문제점

외국인들이 전북에 투자함에 그 환경상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물류체계’에 있어 11개 업체(36.7%)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고, 9개 업체(30.0%)는 ‘사회간접자본’, ‘지원체계’와 ‘요소비용’의 문제점을 각각 3개 업체(10.0%)가 지적하였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2개 업체(6.7%)가 지적하였다.

<표 III-19> 투자환경 문제점(다중응답)

(단위: 개, %)

문제점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물류체계	11	36.7	40.7
사회간접자본	9	30.0	33.3
지원체계	3	10.0	11.1
요소비용	3	10.0	11.1
행정서비스	2	6.7	7.4
기타	2	6.7	7.4
합계	30	100.0	111.1

3) 입지선정 필요정보 수집방법

전북에 투자함에 있어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다수의 18개 업체(60.0%)는 ‘자체조사분석’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을 하였고, 4개 업체(13.3%)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개 업체(6.7%)는 ‘국내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면담조사결과, 외국인 기업이 전라북도에 투자 시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의 전라북도에 대한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의견이 입지선정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확대 시 현재 입지지역에서 투자를 희망 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단계와 사후관리 활동 모두 동등한 비중을 두어 지원시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III-20> 입지선정 필요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단위: 개, %)

수집방법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자체조사 분석	18	60.0	64.3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	4	13.3	14.3
국내 합작투자회사	2	6.7	7.1
전라북도 홍보자료	1	3.3	3.6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	1	3.3	3.6
기타	4	13.3	14.3
합계	30	100.0	107.1

4) 기업활동 관련 정보 수집방법

(1) 기술개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시 정보수집 방법으로는 ‘해외모기업’을 통하는 경우가 11개 업체(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내부’에서 수집하는 경우가 6개 업체(22.2%)였으며, ‘고객업체·판매처’, ‘전시·박람회’를 활용한 경우가 각각 3개 업체(11.1%)로 나타났다.

<표 III-21> 기술개발 시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단위: 개, %)

수집방법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해외모기업	11	40.7	44.0
기업내부	6	22.2	24.0
고객업체, 판매처	3	11.1	12.0
전시, 박람회	3	11.1	12.0
동종의 국내업체	2	7.4	8.0
동종의 외국인 투자업체	2	7.4	8.0
합계	27	100.0	108.0

(2)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관련 정보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업체·판매처’를 통하는 경우가 10개 업체(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내부’에서 수집하는 경우가 8개 업체(30.8%)였으며, ‘동종의 국내업체’를 활용한 경우가 5개 업체(19.2%)로 나타났다.

<표 III-22>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관련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단위: 개, %)

수집방법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고객업체, 판매처	10	38.5	41.7
기업내부	8	30.8	33.3
동종의 국내업체	5	19.2	20.8
전시, 박람회	2	7.7	8.3
동종의 외국인 투자업체	1	3.8	4.2
합 계	26	100.0	108.3

(3)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관련 정보

외국인 투자기업의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업체·판매처’를 통하는 경우가 12개 업체(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내부’에서 수집하는 경우가 5개 업체(19.2%)였으며, ‘동종의 국내업체’를 활용한 경우가 4개 업체(15.4%)로 나타났다.

<표 III-23>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관련 정보 수집방법(다중응답)

(단위: 개, %)

수집방법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고객업체, 판매처	12	46.2	52.2
기업내부	5	19.2	21.7
해외모기업	4	15.4	17.4
동종의 국내업체	2	7.7	8.7
동종의 외국인 투자업체	2	7.7	8.7
전시, 박람회	1	3.8	4.3
합계	26	100.0	113.0

5) 공장입지 결정요인

투자당시 공장입지의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평균적으로 79.2%(±6.3%)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요

인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주요고객 및 시장의 접근성’이 평균 74.9%(±6.0), ‘생산직 및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이 평균 74.7%(±7.1%)로 이 세 가지가 공장입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공장입지 결정요인

(단위: 개, %)

항 목	응답업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오차)	표준편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31	7	99	79.2(±6.3)	35.3
주요고객 및 시장의 접근성	31	5	100	74.9(±6.0)	33.4
생산직 및 전문인력 확보용이	31	5	99	74.7(±7.1)	39.3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3	7	100	35.5(±5.2)	25.2
전라북도의 인센티브	10	10	80	29.0(±8.7)	27.7
유사·동종 생산업체 집적지역	14	8	50	26.3(±3.9)	14.7
기타	31	10	100	91.1(±4.5)	25.0

외국인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소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입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만을 근거로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지역 입지여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입지여건의 구성요소 중에서 질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비용으로 일반화하여 비교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입지결정 요인에 있어서 기업환경개선 인프라, 주요고객 및 시장의 접근성, 생산직 및 전문 인력 확보용이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업체의 조직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전용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선호가 높은 편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업용지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입지지원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 내 유치촉진 및 지역화를 통해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지수효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지제공과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6)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의 지역파급효과

전북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역파급효과들에 대한 업체별 공감도를 ‘각 지역파급효과가 매우 낮다.’(1점)에서부터 ‘각 지역파급효과가 매우 높다.’(5점)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고용효과’에 가장 높은 평균 3.7(±0.2)점의 평가가 나와, 전북 기업에 외국 투자로 인하여 지역고용 창출과 증대에 의한 기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세수증대효과’ 평균 3.5점, ‘협력업체 활용’ 평균 3.3점 등이었다.

<표 III-25> 외국인 기업 입지의 지역파급효과

(단위: 개, 점)

지역파급효과	응답업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오차)	표준편차
지역고용효과	30	1	5	3.7(±0.2)	1.1
세수증대효과	30	1	5	3.5(±0.2)	1.1
협력업체활용	30	1	5	3.3(±0.2)	1.2
기술이전효과	29	1	5	3.1(±0.2)	1.0
유사업체접적	29	1	5	2.1(±0.2)	1.2

전라북도 외국인 기업의 지역 파급효과에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아 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로 고용증대효과를 직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최근에 산업계에서 중시되는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지역사회기관과 교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은 기술이전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차원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해서 자체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현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술, 생산, 마케팅 차원의 유기적인 연결과 소비자와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외국기업유치를 통한 우수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라북도가 기술개발 관련 환경이 우수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연구개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유인해야 하며, 둘째, 조세유인 등 전라북도의 기술개발지원 정책으로 전라북도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이 모국보다 경제적인 경우는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 시 고도기술수반업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7) 전북 기업유치 여건 개선도

이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전북의 기업유치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있어, 5점 척도를 ‘매우 개선’을 1점, ‘매우 악화’를 5점으로 제시하여 평가해 보았다. 평가결과의 해석은 산출되어지는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해당여건이 보다 개선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개선도가 높은 기업유치 여건은 ‘교통접근성’으로 평균 2.6점(±0.2)의 결과가 산출되었고, 다음으로 ‘임대료’가 평균 2.8(±0.1)점, ‘원만한 노사관계’가 2.8점(±0.2) 등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진 여건들로 평가되었고, 이외 ‘고객 및 시장확보 용이성’을 비롯하여 급여 등 ‘저렴한 노무비’, ‘유사동종업체의 집적’ 등은 평균점수가 3점(보통)을 초과하여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표 III-26> 전북 기업유치 여건 개선도

(단위: 개, 점)

기업유치 여건	응답업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오차)	표준편차
편리한 교통의 접근성	28	1	4	2.6(±0.2)	0.8
저렴한 용지·임대료	28	1	4	2.8(±0.1)	0.8
원만한 노사관계	28	1	5	2.8(±0.2)	0.8
고객 및 시장확보 용이성	28	2	4	3.1(±0.1)	0.8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28	1	5	3.2(±0.2)	1.0
유사동종업체의 집적지역	28	1	5	3.2(±0.2)	0.9

3. 투자지원제도

1) 투자 인센티브 인지도

전북 외국인 투자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에 대해 어느 정도 업체들이 알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업체가 4개 업체(12.9%)였고, ‘알지 못한다’는 응답업체가 6개 업체(19.4%), ‘보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개 업체(48.4%), ‘알고 있다’는 응답업체가 2개 업체(6.5%), ‘잘 알고 있다.’는 응답업체가 3개 업체(9.7%)의 비율로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보통포함): 부정적 응답은 67.7%:32.3%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따라서 투자인센티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내에 투자된 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사전 분석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체적인 유치 목적에 따라 이전보조금, 기술이전보조금, 혁신지원보조금 등의 대폭적인 지원과 지역 대학 간의 포럼 등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 III-27> 투자 인센티브 인지도

(단위: 개, %)

인지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응답	잘 알지 못한다	4	12.9	13.3
	알지 못한다	6	19.4	20.0
	보통이다	15	48.4	50.0
	알고 있다	2	6.5	6.7
	잘 알고 있다	3	9.7	10.0
	소 계	30	96.8	100.0
무응답		1	3.2	
합계		31	100.0	

2) 투자유치팀의 지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북 투자 시 투자유치팀의 도움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 업체는 2개 업체(6.5%)였고, ‘도움이 안 되었다.’는 업체가 6개 업체(19.4%), ‘보통이다.’는 응답이 15개 업체

(48.4%),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업체는 4개 업체(12.9%),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는 1개 업체(3.2%)에 불과하였다.

지원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보통포함):‘부정적 응답’의 비율은 74.1%:25.9%로 투자유치팀의 지원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투자 유치는 산업육성 및 외자도입자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차별적이고 총량적인 투자유치 시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니며, 이들 유형에 따라 전라북도에 미치는 과급효과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시책은 투자비율, 투자액, 고용규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나타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지지역, 유형별 지역과급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투자인센티브의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III-28> 투자유치팀의 지원도

(단위: 개, %)

지원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응답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2	6.5	7.1
	도움이 안되었다	6	19.4	21.4
	보통이다	15	48.4	53.6
	도움이 되었다	4	12.9	14.3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3.2	3.6
	소계	28	90.3	100.0
무응답		3	9.7	
합계		31	100.0	

3) 지원시책의 평가

(1) 도움이 되는 시책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공받은 전라북도 지원시책 중 가장 큰 도움을 준 시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용한 시책 1위는 11개 업체(32.4%)가 응답한 ‘조세감면혜택’이었고, 2위는 5개 업체(14.7%)가 응답한 ‘공장부지 무상, 저가

제공시책'이었다. 이외 시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는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유치촉진지원활동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시책은 조세감면혜택, 공장부지 무상, 저가제공시책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유용한 지원시책(다중응답)

(단위: 개, %)

유용한 시책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조세감면혜택	11	32.4	35.5
공장부지 무상, 저가제공시책	5	14.7	16.1
행정서비스 지원	2	5.9	6.5
각종 보조금	2	5.9	6.5
기술경영컨설팅	2	5.9	6.5
지원받은 적 없다	12	35.3	38.7
합계	34	100.0	109.7

(2) 개선되어야 할 시책

다음으로는 지원받은 시책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업체(17.1%)가 '행정서비스 지원'과 '조세감면혜택'에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4개 업체(11.4%)는 '공장부지 무상, 저가제공시책', '각종 보조금', '기술경영컨설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30> 개선되어야 할 지원시책(다중응답)

(단위: 개, %)

개선요구 시책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행정서비스 지원	6	17.1	19.4
조세감면혜택	6	17.1	19.4
공장부지 무상, 저가제공시책	4	11.4	12.9
각종 보조금	4	11.4	12.9
기술경영컨설팅	4	11.4	12.9
금융지원 서비스	3	8.6	9.7
지원받은 적 없다	8	22.9	25.8
합계	35	100.0	112.9

4. 경영여건

1) 전북이전 후 사업성과

전라북도로 사업을 이전한 후 그 사업성과가 어떠한지를 ‘매우 악화(1점)’에서 ‘매우 개선(5점)’까지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조사한 결과, 평균 3.4점이 산출되었고 각 척도에 대한 빈도분포를 보면, 4개 업체(13.3%)만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11개 업체(36.7%)와 더불어, 15개 업체(50%)는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Ⅲ-31> 전북 이전 후 사업성과

사업성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응답	악화	4	12.9	13.3
	보통	11	35.5	36.7
	개선	13	41.9	43.3
	매우개선	2	6.5	6.7
	소계	30	96.8	100.0
무응답		1	3.2	
합계		31	100.0	

2) 사업악화 요인

전북 이전 후 사업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7개 업체(35.0%)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서’라고 대답하였고, 4개 업체(20.0%)는 ‘거래처/고객 확보가 어려워’라고 대답했으며, ‘임금이 비싸서’라는 요인과 과 ‘판로가 어려워’라는 요인을 각각 3개 업체(15.5%)가 응답했다.

<표 III-32> 사업악화 요인(다중응답)

(단위: 개, %)

사업악화 요인	응답업체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업체 간 경쟁이 심해서	7	35.0	53.8
거래처/고객 확보가 어려워서	4	20.0	30.8
임금이 비싸서	3	15.0	23.1
판로가 어려워서	3	15.0	23.1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2	10.0	15.4
기술개발 및 획득	1	5.0	7.7
합계	20	100.0	153.8

3) 사업개선 요인

전북 이전에 따라 사업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제 1의 요인으로 13개 업체(52.0%)가 ‘매출증가’라고 응답하였고, 제 2의 요인으로는 4개 업체(16.0%)가 ‘생산비 감소’라고 대답했다. 그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3> 사업개선 요인(다중응답)

(단위: 개, %)

사업개선 요인	응답업체 수	응답업체 비율	케이스 비율
매출증가	13	52.0	86.7
생산비 감소	4	16.0	26.7
시장 점유율 증가	2	8.0	13.3
협력업체와의 관계	2	8.0	13.3
노사관계 개선	2	8.0	13.3
고객증가	1	4.0	6.7
운영자금 증가	1	4.0	6.7
합계	25	100.0	166.7

4) 거래업체의 지역적 분포

전북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적 분포현황을 비중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경기도와 수도권외의 업체들과 35.5%의 가장 많은 비중의 거래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27.5%, 전북 도내업체들과 28.0%, 인접 도시의 업체들과는 20.8%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 거래업체의 지역적 분포

(단위: 개, %)

지역	전라북도	인접한 도시	서울지역	경기도·수도권	기타 국내지역	해외지역
지역비율	28.0	20.8	27.5	35.5	30.3	35.3
응답업체수	22	12	11	20	17	16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후방연계인 지역 내 물자조달수준이 낮은 편이며, 오히려 해외 지역과 높은 연관관계 및 의존경향을 보인다.

이는 외국인 기업체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에 있어서 단계별, 점진적인 이동 양상과 관계가 있다. 투자초기단계에서는 영업 및 판매활동에 치중하면서 수도권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나 생산활동 확대로 전환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시책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과 전라북도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주요 분야별 의사결정권

전북 투자기업들에 있어서 주요 분야별 의사결정권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여부’에 있어서는 ‘외국 투자 모기업’이 권한이 있고, ‘노사관계’와 ‘정부와의 협의’에 있어서는 ‘조사 당해기업’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체 면담조사에 의하면, 투자국별 입지분포 및 행태에 있어서는 유럽 및 미주계가 일본이나 아시아계 업체에 비해 해외모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도가 높은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사 또는 영업소를 서울에 두고 해외모기업과 교류를 용이하게 수행하거나,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업체는 첨단통신기술을 이용해 매일 혹은 수시로 해외모기업과 교류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 사례기업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의 기업운영과정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결과, 투자결정, 기술개발 및 시제품생산, 전문 기술인력 채용, 제품디

자인 및 설계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해외모기업과 합의 및 협의에 의한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해외모기업의 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협력업체 선정, 마케팅 및 판매, 생산인력채용, 교육훈련, 노사관리 등 일상적인 기업운영은 국내업체의 자율적인 결정이나 국내업체와 해외 모기업간의 합의 및 협의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 따라 제조업 외국인 기업체들은 대부분 생산 활동과정에서 원자재 구매, 마케팅활동 및 판매에 있어서 전라북도 기업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주요 분야별 의사결정권

(단위: 개, %)

구 분		외국 투자 모기업	조사 당해기업/귀사	한국내 모기업	외국 투자 모기업과 합의	합계
경영전략	응답업체 수	9	8	7	5	29
	비 율	31.0	27.6	24.1	17.2	100.0
노사관계	응답업체 수	2	15	10	1	28
	비 율	7.1	53.6	35.7	3.6	100.0
정부와 협의	응답업체 수	2	13	10	3	28
	비 율	7.1	46.4	35.7	10.7	100.0
투자확대여부	응답업체 수	13	6	4	7	30
	비 율	43.3	20.0	13.3	23.3	100.0

제4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대상

1. 전략 산업별 중점 유치 대상

전라북도는 조세감면 대상 업종이 주로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의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 유치에 있어 제한이 되고 있다. 투자 유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 지연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업종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은 미래동력(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제조, 지능화 기계 및 부품(수송기계, 농기계 중심)제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생물·생명 산업은 기능성 위주 식품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방사선 융합기술은 방사선 영상기기, 정밀가공 및 분석기기를 유치할 수 있다. 신·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 기반기술 분야에서는 반도체, 센서, LCD 기술, 디스플레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표Ⅲ-36> 전략 산업별 연계된 중점유치 대상 분야

구 분	유치 대상
전략산업 관련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동력(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제조 - 지능화 기계 및 부품(수송기계, 농기계 중심) 제조 ○ 생물·생명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식품 ○ 방사선 융합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영상기기 - 정밀가공 및 분석기기 ○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 기반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센서, LCD기술, 디스플레이 - 인터넷 포털사이트

2. 지역별 중점 유치 외국인 기업

정보통신사업, 생물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입지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산업은 전문기술인력 확보 지원, 생물 산업은 재정 및 시설지원, 문화산업은 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지원, 환경사업은 기술지원, 장비지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시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 집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에너지 관련 산업, 생물 산업, 문화영상, 물류산업, 기존 특화산업인 귀금속·보석·니트 등이며, 업종별 유치정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 산업집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표 III-37> 지역별 주요 유치산업

지 역	유치 산업
전주시	기계·자동차 부품 및 소재, 콘텐츠,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 항공우주산업, 고도 기술 술 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R&D 센터
군산시	기계·자동차 부품 및 소재, 정밀화학, 물류, 교역,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산업, 식품 관련 산업, 고도 기술 기반산업, R&D 센터
익산시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방사선진단기기, 의료기 관련 산업, 한방과학산업, 보석산업, 섬 유산업, 석재산업, 게임산업, 농업기계, R&D 센터, 식품관련 산업
정읍시	방사선 관련 산업, 기계자동차부품, 생명공학산업, 산업지원 서비스산업, 고도기술 수 반 산업, 농업기계, R&D 센터, 식품관련 산업
남원시	관광레저, 물류,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허브산업, 농축산가공업, 농업기계
김제시	기계자동차부품, 생명공학 산업, 고도기술 기반 산업, 농축산가공업, 농업기계, 식품관 련 산업
완주군	기계·자동차 부품 및 소재, 항공우주산업, 산업지원 서비스, 고도기술 수반산업, 에너 지 관련 산업, 게임산업, 물류 관련 산업, 농업기계, R&D 센터
진안군	관광레저, 생명공학산업, 한방과학 산업, 생물벤처기업, 농축산가공업, 기능성 식품
무주군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생명공학산업, 생물벤처기업, 농축산가공업, 식품관련 산업
장수군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생명공학산업, 농축산가공업, 농축산가공업, 식품관련 산업
임실군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기능성 식품, 생물벤처기업, 농축산가공업, 식품관련 산업
순창군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발효식품, 생물벤처기업, 농축산가공업, 식품관련 산업
고창군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항공 산업, 식품산업, 와인 산업, 생물벤처기업, 농축산가 공업, 농업기계
부안권	관광레저, 산업지원 서비스, 에너지 관련 산업, 농축산가공 산업, 첨단영상산업

제5절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1.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의 개요

본 절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라 전북지역의 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전후방연계효과 등을 산출하여 어떠한 경제적 투자나 경제계획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투자행위나 경제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분석)을 통한 산출법과 유사사례를 재검토하여 각 경제효과의 유발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유도해 보는 케이스 산출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실정에 맞는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국은행에서 '04년에 발표한 '00년 기준 전국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거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03년에 발표한 '00년 기준 각 지역 간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보정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연도와 현재 시점간의 많은 시차가 존재하고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05년 9월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서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케이스 산출법을 활용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산출되어지는 유발계수들에 기초하여 이 지역 주요 산업분야에 원화가치 100억 원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다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액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소득(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여 사전적인 파급효과를 잠정적으로 추산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양적 파급효과 이전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라 지역 경제와 각 산업, 각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질적 파급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양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이전에 이러한 질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정리해 봄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사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2. 지역경제에 대한 질적 파급효과

1)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북지역에 미치게 될 질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동기적인 측면에서 예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선 전북지역의 시장요인에 의한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북의 시장규모, 전북의 경제성장률, 다른 방법보다 전북의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현지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 수입제한 등 현지의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현지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비용관련 요인으로써 저렴한 노동력, 숙련노동력의 이용가능성, 이익적인 사업경영, 저렴한 투입비용, 저렴한 운송비용, 정부의 금융상의 인센티브, 낮은 인플레이션, 기술에 대한 접근용이, 낮은 세금 등의 요인이다.

셋째, 수직적 통합의 요인으로 원료의 이용가능성, 저렴한 투입물 활용, 투입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넷째, 투자여건에 대한 요인으로 정치적 안정성, 본국과의 문화적 유사성, 경제하부구조의 설비확충, 세금체계, 일반적인 환경개선이다.

다섯째, 국가 간 Push요인으로 불완전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의 활용, 국가 간 어려움, 내재적 위험의 다각화, 여타 투자수단에 의한 해외시장공급의 어려움, 국가 간 문제점에 대한 대비 등이다.

2)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질적 파급효과

이상의 외국인 투자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공에 따라 다양한 동기로 부터 유발되어지는 영향은 전북지역에 다음과 같은 질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1) 시장요인에 따른 파급효과

우선 시장요인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에 의하여 전북지역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며, 전북시장의 대외무역활동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현지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 외국인 자본투자기업과 지역경제 간의 원활한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외국자본의 전북시장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수입제한 등의 무역장벽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아울러 전북지역을 외국기업의 수출기지화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북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2) 비용관련 요인에 따른 파급효과

비용관련요인에 의한 질적 기대효과는 합리적 임금수준 제고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형성될 수 있고, 숙련노동력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외국의 합리주의에 따른 경영마인드가 교류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제적 자본이동과 동시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원활해져 투입비용, 운송비용의 경제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금융상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가 용이해 질 것이며, 지역내외적인 물가균일화가 이루어져 지역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으로써 세제혜택의 수여가 용이해 질 수 있는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수직적 통합요인에 따른 파급효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수직적 통합에 의해서는 지역의 부존자원 부족의 제한적 원료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물 활용가능성이 증대하게 되고 투입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의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

(4) 투자여건에 따른 파급효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투자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외국과의 교류증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증대될 것이며, 경제하부구조의 설비가 확충되고, 합리적인 세금체계가 마련됨과 더불어 일반적인 환경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가 간 Push요인에 따른 파급효과

국가 간 Push요인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의 기대효과는 불완전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고,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상대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으며, 국가 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수단에 따른 해외시장공급의 어려움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국가 간 내재적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Ⅲ-38>과 같다.

<표Ⅲ-38>외국인 투자의 질적 파급효과

투자요인	질적 파급효과
시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의 시장규모 확대 ●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의 제고 ● 전북시장의 대외무역활동의 증대 ● 외국투자기업과 지역(우리나라)경제 간의 원활한 조화 ● 외국자본의 전북시장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 ● 수입제한 등의 무역장벽 해소 ● 외국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 전북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
비용관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임금수준 제고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성 ● 숙련노동력의 이용가능성 제고 ● 효율적인 사업경영 ● 투입비용, 운송비용의 경제성 제고 ●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금융상의 인센티브 혜택용이 ● 인플레이션 조절 ● 선진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용이 ● 세제혜택의 수여 용이
수직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원료의 이용가능성 제고 ● 저렴한 투입물 활용가능성 증대 ● 투입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가능성 증대
투자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안정성 확보 ●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확대와 유사성 증대 ● 경제하부구조의 설비확충 ● 세금체계의 합리화 ● 일반적인 환경개선
국가 간 Push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국가 간 상대적 어려움 해소 ● 국가 간 위험의 유형 다각화 ● 다른 투자수단에 따른 해외시장공급의 어려움 해소 ● 국가 간 내재적 문제점에 대한 대비

3. 지역경제에 대한 양적 파급효과

1) 분석의 개요

(1) 사례연구에 의한 분석개요

사례연구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선 지역경제활동의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산출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사례들을 선별하여 이를 통해 경제성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 유발계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원시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제한적 상황에서 '05년 활발한 유치활동에 의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유치의 실적자료와 이에 상응한 평가분석 사례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지역산업체에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을 때에 전북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소득(또는 부가가치)유발효과들을 추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하였다.

(2)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자료

'05년에 전북경제가 이룬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은 12개 대기업을 비롯한 341개 기업을 전북지역으로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⁷⁾ 이중 12개 대기업을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2천 635억 원 투자에 총 4,700명의 고용창출과 12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두었다.⁸⁾

이외에도 '05년 상반기 LS전선 등의 대기업 유치와 군산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부품단지내의 투자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39>와 같이 정리된다.

7) '05년 10월말 기준

8)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5년 11월 보도자료.

<표 III-39> 2005년 상반기 대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	공장위치	투자액(억원)	종업원수(명)	매출액(억원)	임금소득(억원)
LS전선	완주산단	1,415	830	3,500	406
영진약품공업	완주산단	600	600	850	210
동양물산기업	익산왕궁농공	1,000	700	6,000	280
대상	군장국가산단	1,276	300	2,200	120
사조산업	순창풍산농공	450	200	500	70
아데카화인케미칼 ¹⁾	전주과학산단	344	100	400	36
대상식품	순창가남농공	150	100	300	30
미원상사	전주과학산단	600	200	2,000	60
동양에이앤아이	전주과학산단	300	300	850	120
JTY	개별입지	300	300	1,000	120
리나마사	군산 자유무역지역	1,000	600	6,000	431
자동차 부품단지내 ²⁾	군산자동차클러스터	1,570	20,000	10,000	7,000 ³⁾

자료: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05. 9)

- 1) 외국인 투자기업
- 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보도자료(2005. 10)
- 3) 부가가치액임.

(3) 경제성 효과 유발계수 산출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기업별 고용유발계수와 생산액 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기업의 고용유발계수} &= \text{종업원수(명)} \div \text{투자액(억원)} \\ \text{기업의 생산액유발계수} &= \text{매출액(억원)} \div \text{투자액(억원)} \\ \text{기업의 소득유발계수} &= \text{임금소득(억원)} \div \text{투자액(억원)} \end{aligned}$$

또한 군산자동차 클러스터 내의 자동차부품단지내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각 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자동차부품단지의 고용유발계수} &= \text{종업원수(명)} \div \text{투자액(억원)} \\ \text{자동차부품단지의 생산액유발계수} &= \text{매출액(억원)} \div \text{투자액(억원)} \\ \text{자동차부품단지의 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부가가치액(억원)} \div \text{투자액(억원)} \end{aligned}$$

이상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유발계수들을 산정하여 고용유발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재 정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산출결과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의 4대 중점산업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군산자동차 클러스터 내 자동차부품단지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당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 중심의 유치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이러한 유발계수의 산출결과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동양에이엔아이와 영진약품공업, JTY에서 동일 규모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액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동양물산기업과 미원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임금소득의 유발측면에서는 동양에이엔아이와 JTY, 영진약품공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전북지역에 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III-40>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유발계수

번호	업체명	고용유발계수	생산액유발계수	소득(부가가치)유발계수
1	자동차 부품단지내	12.7389	6.3694	4.4586
2	동양에이엔아이	1.0000	2.8333	0.4000
3	영진약품공업	1.0000	1.4167	0.3500
4	JTY	1.0000	3.3333	0.4000
5	동양물산기업	0.7000	6.0000	0.2800
6	대상식품	0.6667	2.0000	0.2000
7	LS전선	0.5866	2.4735	0.2869
8	사조산업	0.4444	1.1111	0.1556
9	미원상사	0.3333	3.3333	0.1000
10	아데카화인케미칼	0.2907	1.1628	0.1047
11	대상	0.2351	1.7241	0.0940
12	리나마사	0.6000	6.0000	0.4300

(4)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양적 파급효과

이러한 유발계수에 기초하여 각 기업들에 동일한 규모인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양적 효과를 가상적으로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 부품단지내에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기대할 수 있는 고용창출인원은 약 1,274명이고, 생산유발액은 636.9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445.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동양에이엔아이에 100억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100명의 고용창출과 283.3억원의 생산유발, 40억원의 임금소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대표적인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LS전선의 경우 10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라 약 59명의 고용창출과 247.3억원의 생산유발, 28.7억원의 임금소득을 전북 지역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개별기업 중 가장 큰 유발효과가 기대되어지는 기업으로는 JTY로 100억원의 투자에 의해 10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지고, 333.3억원의 생산액유발과 40억원의 임금소득을 전북지역경제에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III-41> 투자액 100억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인원(명)	생산유발액(억원)	소득(부가가치)유발액(억원)
자동차 부품단지내	1,273.9	636.9	445.9
동양에이엔아이	100.0	283.3	40.0
영진약품공업	100.0	141.7	35.0
JTY	100.0	333.3	40.0
동양물산기업	70.0	600.0	28.0
대상식품	66.7	200.0	20.0
LS전선	58.7	247.3	28.7
사조산업	44.4	111.1	15.6
미원상사	33.3	333.3	10.0
아데카화인케미칼	29.1	116.3	10.5
대상	23.5	172.4	9.4
리나마사	60.0	600.0	43.0

이상과 같은 경제성 파급효과에 대한 양적 분석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가 개별기업별로 충분히 정리되고 수집되어 D/B화 되어졌을 때에 전북경제에 미치는 양적 파급효과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측되어지고, 또한 이에 상응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전략 및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제 4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 제 1 절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 제 2 절 외국인 투자기업체 발굴
- 제 3 절 홍보역량 강화
- 제 4 절 사후관리

제 4 장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제1절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1. 기본전략

1)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업유치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팽창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주력산업을 개발하고 이에 상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른 신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투자여건은 해당지역이 산업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만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투자 유치 기업도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집중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치된다면 국내지역의 외국 기업도 전라북도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자동차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주-익산-군산을 연결하고 익산-김제-정읍을 연결하는 T자형 자동차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계 산업의 클러스터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2) 외국인 투자 집적지구 조성

외국인 기업은 투자관련 기업의 집적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집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용지구지정을 추진

해야 한다. 지구지정은 기존의 기업이 어느 정도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지구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지역혁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과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물리적 기반을 지원한다.

<표 IV-1> 집적지구지정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산업단지, 개별입지 기업, 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 혁신관련 시설, 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포괄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산업의 집적 및 전문화 정도 ● 대학·연구소·기반시설의 구축 정도 ● 지자체의 집적지구 조성의지 등 고려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환경 정비, 기반시설 확충,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연관기업 집적유도, 행정규제 간소화 등에 중점 지원 ●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기반 지원

3) 외국인 정주환경 정비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복합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 등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기본적으로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요인들로 유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이 신설될 경우 많은 현지인들이 이주하게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지원제도나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표 IV-2>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의 생활환경 애로사항

분 야	주요 애로 사항
교육	우수학교 부족, 교육비용 과다, 학교시설 열악
주거	관행에 의한 임대차 계약처리, 월세전액 선불요구, 주거관련정보 부족
의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불편, 의료비용의 차별적 적용, 외국인 진료병원 육성책 부재
교통	교통질서 및 법규위반, 난폭운전, 교통혼잡, 주차장 부족,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
출입국	단기체류 비자부여, 출입국 심사 장시간 소요, 외국인 등록번호 인지도 미약
문화, 통신	외국어 방송부족, 외국인종합생활·문화 안내정보 부족, 카드발급·전화가입곤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2004.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장입지 대상 지역의 삶의 질, 교육 및 연구기관의 근접성, 문화기반시설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환경 우수성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세부사업

1) 항만 및 공항의 기능강화

(1) 필요성

- 글로벌 기업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달·생산·판매거점화를 추진
- 세계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항은 첨단산업 및 물류유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
- 홍콩의 첵랍콕 공항,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 등은 신속한 수송을 필요로 하는 첨단제조업 및 물류유통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

(2) 사업내용

- 공항 및 항만의 조기완공 및 기능 활성화

2) 산업 클러스터 위주의 유치

(1) 필요성

- 첨단산업의 고도 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외국인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 위주의 유치가 필요
-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집적지와 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 분양 및 임대제도의 유연성 제고, 집적지의 자생력 확보 등으로 산업클러스터 위주의 유치계획이 필요(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경우: 투자 지원지역, 기업장려 지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기업의 유치에 성공)

(2) 사업내용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제자유무역지구 활성화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활성화

(1) 필요성

-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 등 SOC부문 시설확충, 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조달은 외국인 자본 유치 필수
- 인천 경제구역의 경우 총 투자 수요 202조 원 중 국고·지방비는 14.7조 (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

(2) 사업내용

- 항만분야, 공항분야, 유통분야, 기타 기업유치 인프라 시설

4) 외국 교육기관 유치

(1) 필요성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유치에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의료 및 주거 등의 정주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필요
- 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주환경부문 중 교육부문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02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지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재정지원기준을 개정해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 투자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의 방안 마련(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2) 사업내용

-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T/F팀 구성·운영
- 외국 우수 교육기관과 MOU체결

<표 IV-3>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추진일정

사업명	'06	'07	'08	'09	'10
항만 및 공항의 기능강화		○	○	○	○
산업 클러스터 위주의 유치	○	○	○	○	○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활성화		○	○	○	○
외국교육기관 유치		○	○		

제2절 외국인 투자 기업체 발굴

1. 기본전략

외국인 투자 기업체 발굴의 기본계획에는 당년도의 투자유치 목표, 유치지원계획 및 예산, 투자 유치단 파견을 위한 유치활동계획, 외국인 투자조사단의 초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세부계획으로는 자체 리서치 및 정보 분석, D/B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투자지원기관 및 단체와 투자유치활동 전개, 수도권 및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방문, 잠재적 투자가 및 주한외국인 CEO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투자유치 관계 기관인 산업자원부와 KOTRA등과 협의하여 투자유치활동 추진 시기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권 및 도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수시로 접촉하여 국내기업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워진 전라북도
도의 투자환경,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소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국내의 기업컨설팅 업체와 주한외국인 및 CEO를 초청하여 투자포럼 및 설명회
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등 현지 Tour계획을 수립한다.

2. 세부사업

1) 투자기업 발굴 및 DB화

(1) 필요성

- 전라북도와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 해외진출 및 공장용
지를 모색하는 외국인 기업,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 및 전라북도
에 관심을 표명하는 외국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2) 사업내용

- 세계적인 컨설팅 노하우를 가진 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
기업발굴에 효율화(일본의 노무라 연구소, 삼성테크윈)

2) 외국인 투자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1) 필요성

- 국내외 전문가, 대기업, 외국기업 경력자 등 옴부즈맨(투자전문가), 투자유치
전문가의 외국인 전문가 임용

(2) 사업내용

- 투자유치의 경우 공항입국부터 출국(Port to Port) 가이드, 투자조사, 협상,
개발, 사후관리까지 투자별 담당제 도입(One-Man-Service)

3) Key Influencer의 집중 관리

(1) 필요성

- 잠재적인 투자자인 다국적 기업 임원과 Key Influencer인 외국 공관원(상무관)들의 전라북도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2) 사업내용

- 각국 외국 공관원 및 상무관에 대한 전라북도 투자 정보 패키지 제공
- 다국적 임원에게 전라북도 산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4) 국내 다국적 기업대상 설명회

(1) 필요성

-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의 50%이상이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다국적 대기업들은 전라북도의 잠재적인 투자자이자 Key Influencer들임

(2) 사업내용

- 투자관심도 측정 및 상담대상 회사선정, 개별상담 의향을 문의하여 서한발송
- 설명회 대상은 국내 진출 다국적 대기업이고 대상자는 Invest korea의 DB 활용

<표 IV-4>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추진일정

사업명	'06	'07	'08	'09	'10
투자기업 발굴 및 DB화	○		○		○
외국인 투자 전문가 총원	○		○		○
Key Influencer의 집중 관리	○	○	○	○	○
국내 다국적 기업대상 설명회	○	○	○	○	○

제3절 홍보역량 강화

1. 기본전략

전라북도 투자의 마케팅 기능 강화는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입된 항만, 공항에 대한 인지도와 경영환경 향상에 대한 강한 홍보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 조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케팅 부재에 대한 심각성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초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마케팅 추진 주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특히, 마케팅 담당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기능의 창설, 담당인원 확충, 관련 재정확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지역 투자·행정지원 기능을 갖추게 될 전라북도 투자지원팀에 마케팅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조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마케팅 전담 지원팀은 i)외국인 투자지원과 마케팅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각 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ii)마케팅 전담 Task-Force Team구성과 운영에 따라 외국 투자유치상의 각 프로세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iii)각 관련 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추진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전담팀은 전라북도 중장기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i)잠재적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이들에 대한 마케팅 추진, ii)On-line과 Off-line측면에서의 홍보·마케팅 자료작성 및 배포, iii)정기적인 국제 홍보 로드쇼 개최, iv)지역 관련 컨설팅 기능 확보 및 컨설팅 결과의 제공, v)지역 관련 전문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정기적인 국제 홍보 로드쇼 개최는 해외 대사

관, 무역관, 홍보관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능적 연계를 도모하여 효율적 유치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경제권·국가·대상기업의 업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는 마케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홍보·마케팅 전략의 경우 On-line, Off-line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 마케팅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케팅과 잠재고객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투자 상담까지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컨설팅 기능 확보 및 보고서 제공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마케팅 기능을 제공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최적 투자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기업환경체계 관련 전문정보와 투자환경 정보 제공 등 지역 관련 연구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세부사업

1) 전라북도 투자유치 브랜딩 사업

(1) 필요성

-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전라북도 비전과의 연결성이 필요
- 주요 타깃인 외국투자자들은 주요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로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에 익숙
- 잠재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가 전라북도의 첫인상이 되며, 이를 통해 일관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인식
- 한국과 경쟁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각 국가의 지역에서는 모두 세련된 투자 관련 지역의 이미지와 로고를 가지고 있음

(2) 추진방식

- 대외기업유치 홍보이미지 일관성, 투자자를 위한 전라북도의 사업 환경의 함축적 제시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로 상품화 하고 이를 유치대상 인식 속에 쌓아 나가기 위한 일관된 메시지로 제작
- 향후 시장의 잠재력과 기회의 비전을 내용으로 추진
- 목표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강조

2) 전라북도 투자 마케팅 전담조직 구성

(1) 필요성

- 마케팅전략 수립, 지역에 대한 홍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마케팅 추진 주체의 설립이 필요
- 경상남도는 투자유치 조직은 관리 팀 5명, 기계자동차 팀 3명, 기업도시 팀 3명, 첨단산업 팀 2명, 항공물류 팀 2명, 조선 및 물류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관련 조직으로 투자 진흥관을 조직하여 투자정책팀 5명, 아주 팀 4명, 미주 팀 6명, 구주 팀 5명, 투자입지 팀 5명으로 조직되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2) 추진방식

- 잠재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이들에 대한 마케팅 추진
- On-line, Off-line측면에서의 홍보·마케팅 자료 작성 및 배포
- 정기적인 국제 홍보 로드쇼 개최
- 지역 관련 전문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 컨설팅 기능 확보 및 컨설팅 결과의 제공

3) 업종별 공동투자 설명회 및 브로슈어 제작

(1) 필요성

- 맞춤형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설명회 보다는 현실에 맞는 업종별 투자설명회 및 업종에 적합한 브로슈어 제작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공동투자 설명회가 필요하고 또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형과 적합한 산업의 유형별 투자설명회가 필요함

(2) 추진 방식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주요업종(5대 전략산업, 지식산업, 첨단산업, 지식 서비스업)별로 투자 안내 브로슈어 제작
- 업종별로 입지조건을 소개하고 업종 동향과 전라북도의 발전 비전에 대한 자세한 근거자료를 포함(국내경쟁 현황 정보, 국내 및 배후 시장규모)

4)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광고

(1) 필요성

- 투자대상 기업 홍보는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에 관한 세계적인 산업 전문지에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접근 방법 등에 관한 홍보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전문지의 위상은 일간지를 뛰어 넘고, 특히, 오랜 경력의 전문기자들이 갖는 영향력과 네트워크 수준은 매우 높음

(2) 추진방식

- 다국적 기업의 세계 본사/지역본사가 소재한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동경, 파리 등과 미국 내 주요도시 등의 지역단위 광고 캠페인을 활용
- 한국진출을 준비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한국 무역관(KORTA의 해외무역관 103개 무역관을 해외 네트워크로 지정활용)을 통해 한국에 관한 투자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잠재적인 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을 활용

5) 정기적인 국내·외 영자판 신문 및 뉴스사이트 광고

(1) 필요성

- 국내·외 영자판 신문은 국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임원들의 구독률이 가장 높은 신문이고, 해외 뉴스 검색엔진 및 뉴스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되는 미디어매체

(2) 추진 방식

- 정기적인 국내·외 영자판 신문 홍보, 외국인 투자자가 자주 접촉하는 해외 뉴스 검색 엔진, 뉴스사이트에 홍보

6) Investment Fact-book 지속적인 update

(1) 필요성

- 투자유치활동에 있어 유치대상들의 관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집 필요

(2) 추진 방식

- 유치대상업종, 제품, 사업현황, 사업계획 등의 관심사항과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전략을 수립하고, 상담 시 설명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데이터 관리

7) 투자유치 업무편람 제작

(1) 필요성

-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서 투자 상담을 준비하거나 상담시에 활용 가능한 업무편람이 제작 필요
- 투자유치 홍보에 있어 기본 참고자료로 홍보인력이 바뀌더라도 업무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업무 추진 가이드 북의 작성과 제공 필요

(2) 추진방식

- 다양한 홍보활동 전략 소개, 해외언론 응대 요령, 홍보활동의 기본 절차 소개, 영문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어민 중심으로 작성, 전라북도과 각 시·군의 외국기업유치 담당자의 홍보활동 시 참고
- 전라북도 지역에 관한 내용과 유치업종별로 자주 질문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 전라북도과 각 시·군의 외국기업 유치 전담 공무원과 공유

<표 IV-5> 홍보역량 강화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명	'06	'07	'08	'09	'10
투자유치 브랜딩 사업		○	○	○	○
투자마케팅 전담조직 구성	○		○		
업종별 공동투자 설명회 및 브로슈어 제작	○		○		○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광고	○	○	○	○	○
정기적인 국내영자판 신문 및 뉴스사이트 광고	○	○	○	○	○
Investment Fact-book 지속적인 update	○		○		○
투자유치 업무편람 제작		○		○	

제4절 사후관리

1. 기본전략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 철수율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투자의 회수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요구에 대응이 미흡하고, 경제상황 악

화, 경쟁국으로의 투자전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정확한 철수 원인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 투자한 전라북도 기업인의 한마디가 신규투자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주변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를 고려할 때 기 진출한 자국기업 경영자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투자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투자사후 관리서비스 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충처리 현황을 보면, 노동, 조세, 법률, 투자절차 등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존 투자 기업은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유치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를 유인하거나 관련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같은 경우는 재 투자공제는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까지 공제해 주고 있고, 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실행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세부사업

1) 투자업체 일제조사

(1) 필요성

- 투자사후서비스 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충처리 현황을 보면, 노동, 조세, 법률, 투자절차 등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내 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업체별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식

-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및 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체 애로사항 및 재 투자 의향 조사
- D/B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 국내외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전자화하여 기업의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을 관리

2) 투자성과 홍보 프로그램

(1) 필요성

-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애초 설정한 투자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투자의 성과를 사후관리 및 투자유치 홍보에 이용
- 지표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개발이 필요

(2) 추진방식

-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수의 증감내용 수록
-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및 연구소의 공동연구 성과(특허개발건수)가 몇 건인지 등을 파악하여 관리

-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인적자원 활용 정도, 창출 부가가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 파악

3) 외국인 투자기업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개최

(1) 필요성

- 외국인 투자기업 CEO나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간 신뢰관계의 구축

(2) 추진방식

- 산업별 투자기업체 CEO 간담회, 지역별 투자기업체 CEO 간담회

4) AP(Assistant Partner) 지정운영

(1) 필요성

- 투자 유치된 기업과 정례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접수하여 One-Stop Service지원이 필요

(2) 추진방식

- 직접유치 외국기업과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증액투자 가능업체에 투자유치과 소속공무원을 AP로 지정하여 기업과 유대관계,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 강구, 증액투자 유도

5) 기 진출한 외국기업 현장 방문

(1) 필요성

- 투자된 기업과 정례적인 접촉을 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전라북도에 대한 신뢰감과 감동을 주어 향후 재투자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

(2) 추진방식

- 전라북도에서 직접 유치하였거나 기 진출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수렴, 인센티브 제공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

<표 IV-6> 사후관리 사업 추진일정

사업명	'06	'07	'08	'09	'10
투자업체 일제조사	○		○		○
투자성과 홍보 프로그램	○	○	○	○	○
투자기업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	○	○	○	○
AP(Assistant Partner)지정운영	○		○		○
기 진출한 외국기업 현장방문	○	○	○	○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 1 절 결 론
- 제 2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세계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 유치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외국 기업 유치는 그 긍정적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외국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외국기업 유치는 성장 동력 재점화와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렛대라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니즈, 전북 비전·전략, 전북의 강점을 감안하여 외국기업 유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외국기업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을 시키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외국기업 유치는 전라북도 비전·전략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강점과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 외국 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략산업과의 연계, 혁신 유발 정도를 감안하여 적합한 외국기업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유치 정책의 목표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외국기업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 즉 자본 보다는 제조 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는 한편,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 기계 및 자동차, 정보서비스업 등의 투자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기업 유치는 글로벌 경영, 투명 경영, 재무건전성 등 선진 경영기법을 도내에 접목시켜 도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쟁촉진 효과를 가져와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한다. 즉, 외국인투자 유치는 신산업의 유인과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 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효과, 생산 및 고용증대 효과, 선진 투자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기업의 입지에 의한 전라북도 신인도 및 이미지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지역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기업의 마케팅 기능 강화는 전라북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입된 항만, 공항에 대한 인지도와 기업환경 향상에 대한 강한 홍보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외국기업 유치의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마케팅 추진 주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입맛에 맞는 투자여건은 해당지역이 산업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만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 유치는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장이 가능한 주력산업을 개발하고 이에 상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생산 및 투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유형에 따른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점검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사전 분석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유치단계의 지원시책 못지않게 유치 후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투자확대 시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신규 투자 기업들도 기존에 투자된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시책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책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의 이원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전라북도 간에 실시간 종합입지정보시스템 등의 협력적인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전라북도에 입지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생산 활동이 가능한 공장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기업의 부지 수요와 전라북도의 입지제공 정보를 연계 실시한 입지정보시스템 등의 공동운영으로 적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 내 유치촉진을 통해 지역고용 등의 직접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산업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지원을 해야 한다.

일곱째, 전라북도의 외국인기업 유치는 특히 기술이전에 의한 첨단제품 수출 촉진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라북도에 생산 및 R&D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은 인력, 투자인센티브, 규제 그리고 전체적인 기반 시스템 등에 지원 되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의 연계,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외국인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목표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외국인기업의 유치'로 설정하여 양적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질적 위주의 외국인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개방화와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전라북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용, 생산, 수출,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추이는 다소 관망추세 내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 발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잠재적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서 전복으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로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투자 상담과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고, 나아가 잠재적 투자자의 관

심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비즈니스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도 필요하다. 투자설명회 때는 성과 중심의 Man-to-Man방식에 기초를 둔 투자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Investment Tour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타깃 프로젝트를 선정, 전라북도가 직접 참여하고, 전라북도의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여 투자지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프로젝트를 매력적으로 상품화해야 한다.

2.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직접적인 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북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조성도 필수적이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외국인들의 정주 공간 내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단기간에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어렵고, 전라북도 전역에 동일한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외국인 전용단지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집적지역 인근에 외국인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외국인의 정주조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설립하여 전라북도의 세계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3.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의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의 활성화이다. 수도권의 신규투자를 위한 기업설립 여건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외에도 높은 입지비용 등으로 전라북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절대 열위에 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의 외국인 전용 단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기업의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무상 임대하고 투자업체의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에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의 지역내 유치촉진을 통해 지역고용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병행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지원, 지역별 산업포지셔닝 전략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4. 프로젝트매니저(PM) 중심의 유치 지원체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one-stop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One-stop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절차와 단계를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공장설립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부서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투자심의협의회의 인증절차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투자검토 단계에서부터 투자입지 및 기반 등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고,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여러 부서나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심리적 피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입지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나 요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전담인력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PM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적

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투자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이전계획기업이 투자 희망지역으로 전라북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지원제도 안내, 인센티브 수혜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단 투자에 관한 상담을 시작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해결 또는 지원하기 위한 전담 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 관리관은 투자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투자기업이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이전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일환으로 투자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를 청구하여 이전기업이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투자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전라북도의 공장설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투자기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기업의 선택

첫째, 전라북도 현황에서 외국 기업 선택의 유형은 M&A형 투자보다는 공장 신설형 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유치하는 유리하다. M&A형 투자는 기존의 공장시설 및 고용인원을 그대로(오히려 인수 후에는 생산효율성을 위해 인원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인수하여 그 만큼 신규로 생산시설 및 고용창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산업개발, 즉 전북의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집중 유치하여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경제, 교육, 문화 등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정 산업과 전략산업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매력요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라북도가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SOC프로젝트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도로, 교량, 항만 등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관광단지나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개발 사업을 투자유치의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개발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개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7.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역할 분담체계 정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시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협조적인 역할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시책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의 이원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정립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권영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 결정: 교섭력 모델”, 『무역학회지』 24호, 1999.
- 김억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개선방안”, 『한일경상논집』, 2000.
- 김윤철,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와 부진요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3.
- 김진용·이정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0.
- 김준동,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류승안,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책”, 국토연구원, 2003.
- 박용규·송영필·강신겸,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백상호·임성훈·김덕준·오동화·김기학·유상원,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3.
- 산업연구원,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제조업의 현황 분석”, 2004.
- 산업자원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003.
- , 『외국인투자통계』, 2003.
- , “2003년도 제조업외국인 투자현황”, 2003.
- ,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2003.
- ,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2003.
-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과 반전해법”, 2003.
- 이성봉·이형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이용섭,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시행규칙”, 2003.

- 주한광·김승진, 국내 외국인투자 현황과 정책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2001.
- 조혜영,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2004.
- 조경두, “산업단지 운영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4.
- 진영환 외, “산업단지개발의 파급효과 및 개발방향”, 국토개발연구원, 2003.
- 전영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추진방향”,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2004.
- 차미숙·정윤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 최백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2004.
- , “해외투자론”, 『대경』, 2004.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전략과 시사점”, 2003.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고소득 달성 이후 위기와 대응”, 2003.
-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구축방안”, 2003.
- 한도숙,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부 록

- 전라북도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설문조사

전라북도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설문조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에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로 전라북도 외국 기업유치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향후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 전북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시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는 연구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05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장

연락처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구 전북 도청 서편청사
2층 전북발전연구원

전화: (063) 286-9213, 9217, 팩스: (063) 286-9206

홈페이지: <http://www.jd.re.kr>, 이메일: nsg@jd.re.kr, rohshy@jd.re.kr

연 구 진: 나상균, 노상윤

--	--	--	--	--

I. 일반현황

1. 설립연도(투자)는? ()년 2. 투자국은? ()
3. 주요생산품 ① () ② ()
4. 제품형태는? ① 최종제품·완성품 ② 중간재·부품 ③ 기초소재·원자재
5. 귀사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분	투자규모(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연간매출액
설립당시	천불	%	백만원
현재(2005년)	천불	%	백만원

6. 귀사의 투자 형태는?
 - ① 단독투자의 신설법인
 - ② 단독투자의 기존업체 인수
 - ③ 국내기업과의 자본합작에 의한 신설법인
 - ④ 국내기업과 자본합작에 의한 기존업체 인수 또는 자본참여
 - ⑤ 기타()

II. 투자현황

1. 귀사의 전라북도 투자 동기는?
 - ① 저렴한 용지(임대료)
 - ② 편리한 교통접근(항만, 도로, 철도등)
 - ③ 고객 및 시장 확보
 - ④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 ⑤ 전문인력 확보 용이
 - ⑥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 ⑦ 자치단체의 유인정책·제반혜택
 - ⑧ 원활한 노사관계
 - ⑨ 지자체와의 교류관계
 - ⑩ 기타()
2. 전라북도에 투자 시 투자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행정서비스
 - ② 지원체계
 - ③ 요소비용
 - ④ 물류체계
 - ⑤ 경제관행
 - ⑥ 사회간접자본
 - ⑦ 기타()
3. 귀사는 전라북도에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 ① 전라북도 홍보자료 ② 외국인투자지원센터 ③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④ 국내 합작투자회사 ⑤ 자체조사·분석 ⑥ 기타()

4. 귀사는 다음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 ① 기술개발 정보 () ②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관련 정보 ()
③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관련 정보()

범 례	①해외 모기업 ②기업내부 ③고객업체, 판매처 ④동종의 국내업체 ⑤동종의 외국 인 투자업체 ⑥대학연구기관 ⑦전사·박람회 ⑧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	---

5. 귀사의 투자당시 공장입지 결정 요인을 비율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생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용이	
유사·동종생산업체 집적지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전라북도의 인센티브		주요고객 및 시장의 근접성	
기타 ()			

6. 현재 귀사의 입지에 따른 지역효과는?

번호	설문항목	매우 낮다 보통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1)	지역고용 효과	①	②	③	④	⑤
2)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	①	②	③	④	⑤
3)	지역내 유사업체의 집적	①	②	③	④	⑤
4)	지방세수 증대효과	①	②	③	④	⑤
5)	지역혁신 및 기술이전효과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7. 귀사의 상황에서 볼 때, 전북에 이전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전북의 기업유치 여
건은?

번호	설문항목	매우 개선 보통 매우 악화				
		①	②	③	④	⑤
1)	저렴한 용지(임대료)	①	②	③	④	⑤
2)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①	②	③	④	⑤
3)	편리한 교통접근	①	②	③	④	⑤
4)	고객 및 시장 확보 용이	①	②	③	④	⑤
5)	원만한 노사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①	②	③	④	⑤

IV. 투자지원제도

1. 귀사는 전라북도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지 못한다 ② 알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2. 귀사의 전라북도 투자 시 투자유치팀의 도움정도는?

- 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귀사가 제공받은 전라북도 지원 시책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시책과 개선되어야 할 시책은? 1) 도움이 된 시책(), 2) 개선되어야 할 시책()

- ① 조세감면혜택 ② 공장부지 무상, 저가제공시책 ③ 행정서비스 지원 ④ 각종 보조금 ⑤ 금융지원 서비스 ⑥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 ⑦ 지원 받은적 없다 ⑧기타()

IV. 경영여건

1. 전라북도로 이전해온 이후 귀사의 사업성과는 어떠하십니까? (①~⑤ 중 택일)

매우 악화 ① ←-----②-----③-----④-----⑤ 매우 개선

☞ 위 문항에서 (①, ②, ③)에 답하신 분은 2번 문항에 답하시고, (④와 ⑤)에 답하신 분은 3번 문항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번 문항에서 “비교적 악화 되었다고”(③ 이하)라고 답하신 분은 어느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업체간 경쟁이 심해서 ② 거래처/고객 확보가 어려워서 ③ 자금조달 ④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⑤ 임금이 비싸서 ⑥ 판로가 어려워서

⑦ 기술개발 및 획득

⑧ 기타()

3. 위 1번 문항에서 “비교적 개선되었다”(④ 이상)라고 답하신 분은 어느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출 증가 ② 시장 점유율 증가 ③ 협력업체와의 관계
- ④ 생산비(판매비) 감소 ⑤ 고객증가 ⑥ 운영자금 증가 ⑦ 노사관계 개선
- ⑧ 기타()

4. 귀사의 거래업체(거래업체 전부)의 지역적 분포를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라북도	인접한 시도	서울 지역	경기도·수도권 지역	기타 국내지역	해외지역	합계
비율							100%

5. 다음 사항들에 있어 귀사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외국투자 모기업	조사 당해기업/귀사	한국내 모기업	외국투자 모기업과 합의	한국·외국 합작기업
경영전략					
노사관계					
정부와 협의					
투자확대 여부					

6. 귀사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업체의 지역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라북도의 지원 시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귀사의 고견을 제시하여주세요.

전발연 2005-R-05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연구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 (063)286-9201 팩스: (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